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제13권 제1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2, 6, Vol. 13, No. 1, 215-274.
doi <https://doi.org/10.12964/jsst.22005>

말레이시아 거주 미얀마 난민아동의
집단모래놀이치료 과정에 대한 예술기반 연구

Art-based Research on Group Sandplay Therapy
for Myanmar Refugee Children Staying in Malaysia

이 여 름
Yeoreum Lee

이 세 화
Sehwa Lee

장 미 경
Mikyung Jang

최 예 린
Yelin Choi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말레이시아 거주 미얀마 난민아동의
집단모래놀이치료 과정에 대한 예술기반 연구
Art-based Research on Group Sandplay Therapy
for Myanmar Refugee Children Staying in Malaysia

이 여 름*	이 세 화**	장 미 경***	최 예 린****
Yeoreum Lee	Sehwa Lee	Mikyung Jang	Yelin Choi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group sandplay therapy that we provided to Burmese Chin children living in Malaysia as ethnic and religious refugees and our analysis of the themes in the children's sandboxes using an art-based research method. All the participants were Burmese Chin refugee children aged 10 to 13 years old, attending an international refugee school in Kuala Lumpur, the capital of Malaysia. Participation was voluntary, with written consent from legal guardians. The sample chosen for the study comprised 12 children, with six males in one group and six females in the other group. Altogether, the children took part in five sandplay sessions, which lasted 120 minutes each. During these sessions, all the participants expressed individual the sandtray and then gathered to share and talk about the scenes they had made in the sand. After each session, it construed the children's sand scenes, imaginative stories and symbolic image from an analytical psychology perspective and categorized the contents by common themes. As a result, six themes emerged: homes taken away, abandoned children, bystanders, safety bases, and liberation/resettlement. Through the sandplay therapy, the refugee children could express their trauma in a safe, supportive environment. Sandplay provided these children with an opportunity to identify their trauma, independently overcome that trauma, and grow.

Key words : Myanmar refugee children, group sandplay therapy, Art Based Research (ABR)

* 주 저 자,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상담·심리치료전공 강사
** 교신저자, 남서울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강사 (gginmandu@hanmail.net)
*** 공동저자,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공동저자,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I. 서 론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다(UNHCR, 2017). UNHCR Global Report(2016)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1,700만 명의 난민이 있다. 2018년 7월 기준 말레이시아 UNHCR에는 159,980명의 난민과 망명신청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미얀마인이 138,650명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난민 및 망명신청자의 약 86.7%를 차지한다. 다민족 국가인 미얀마난민의 민족별 분포는 로힝야족이 30,140명, 친족이 9,850명이다(UNHCR, 2018).

미얀마인들은 대부분 불교도이지만 미얀마의 친족, 카친족 및 카레니족 등의 소수민족은 기독교인이며 로힝야족은 전통적으로 이슬람교도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다른 종교를 믿는 소수민족들은 미얀마 군으로부터 종교적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다(Kio, 2009). 이중 친족(Chin People)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접경지대 해발 900~2,000미터 높은 고원지대 숲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지내 온 민족이었으나 미얀마 군의 무력으로 인해 미얀마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으며 생존을 위해 인근 국가들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한겨레21, 2021년 11월 11일).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이 이들이 피난하거나 영구적 거주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국가들이다. 말레이시아는 1951년 국제난민협약에 서명하지 않아 이 국가에서의 난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지만 다민족 국가이고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며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들은 열악한 거주환경과 빈곤 속에서도 UN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아 영국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Alexander, 2008).

난민들은 여러 외상과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그 중 특히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은 이러한 경험에 더 취약하다. 이들이 경험하는 외상과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국에서 경험하는 폭력 그리고 피난과정에서 겪는 폭력과 어려움이다(Fazel & Stein, 2002). 이들은 조상때 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과 농지를 잃거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험을 했다. 피난할 때는 육로와 배를 통해 인접국가로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쫓기거나 직·간접으로 폭력을 경험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등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주한 후에도 SNS나 뉴스, 이후 오는 사람들의 소식 등을 통해 동족의 사망이나 피해소식을 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계속 폭력에 노출된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곳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상과 스트레스이다(Fazel & Stein, 2002). 좁은 공간에 여러 세대가 살아야 하는 거주여의 어려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모들의 학대, 합법적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한 저임금, 체불, 착취 등

로 인한 극심한 빈곤, 경찰들에게 불갑혀 추방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Alexander, 2008). 장기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인권 침해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과 외상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Brune et al., 2002; 2003; Hargreaves et al., 2003; Hodes, 2000; Mckelvey & Webb, 1995; Sourander, 1998; Turner, et al., 2003).

이러한 경험은 난민아동들에게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섭식 장애와 수면 장애, 분리불안 등의 퇴행적인 행동과 죄책감, 신체화 증상, 타인 침범, 가족 구성원과 미래에 대한 공포증상, 행동문제(소리지리기, 울기, 물건 부수기 등), 과잉행동 등을 보이며, 청소년의 경우 약물 남용, 범죄, 폭력 등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Maršanić et al., 2017; Veronese et al. 2017; Shonkoff & Garner 2012). 또한 그들은 불안, 우울, PTSD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난민의 정신건강에 대해 이루어진 이전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경우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 보다 높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보였으며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보고했다(Low, et al., 2018). 난민들의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대처 전략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ustig, et al., 2004). 말레이시아 난민 청소년들 역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Kok, Lee, & Low, 2017). 좋은 부모 또는 성인의 지원, 지역 사회 네트워크, 학교생활, 긍정적인 전망은 난민들이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Davies & Webb, 2000; Fazel & Stein, 2002; Mekki-Berrada, Rousseau, & Bertot, 2001; Papadopoulos, 2001). 즉 난민들의 외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요소를 사용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시리아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Urgulu et al., 2016), 난민들의 외상과 관련된 인지행동 연구(Unterhitzenberger et al., 2015), 수단 난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CPRT) 사례연구(Lim & Ogawa, 2014) 등이 있다. 다양한 심리치료적 접근들을 통해 난민들의 외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쟁이나 폭력은 아니지만 서남아시아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 수십 만 명이 사망한 지역에서 이주한 캐나다의 아동들에게 이루어진 모래놀이치료 연구(Lacroix, et al., 2007), 캐나다에 망명 신청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치료의 내러티브로 분석 연구가 있다(Kronick, Rousseau, & Cleveland, 2018). 그러나 미얀마 친족 난민아동에 대한 집단모래놀이치료 접근은 없었다.

“놀이는 문화를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경험이다(play is also a universal experience across cultures)”이다(Hilado et al., 2021, p. 233). 인간경험에서의 놀이의 보편성을 활용하는 심리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문화차이를 좁힐 수 있게 한다. 내담자와 치료자 관계는 전이/역전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전이/역전이 관계의 이미지는 매우 원초적 형태의 합일 관계로도

이미지화 되며, 정신내면의 본질적, 무의식적 구조의 투사로 원형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전이관계는 단순히 내담자가 경험한 관계의 반복이 아니라 과거 유아적 감정의 재연을 촉발시키는 원형적, 본능적 충동이 심리치료에 의해 활성화되고 투사되는 것이다(장미경, 이여름, 2020). 이러한 무의식적 수준에서의 관계가 모래놀이치료에서는 모래장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와 상자, 물,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상물과 상징물을 포함한 모형을 통해 내담자와 치료자가 놀이의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인간 본성의 자기치유력이 작용하도록 도모하는 심리치료 접근이다(Roesler, 2019). 또한 ‘talking therapy’에 비해 비언어적 상호작용, 신체감각, 상징을 통한 감정, 무의식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비해석적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언어, 문화, 인종 등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치료 개입이 이루어지게 한다(장미경, 2017; Castellana & Donfrancesco, 2005). 특히 언어화 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내담자의 외상 경험이 치료과정에서 이미지와 신체감각을 통해 표현된다(장미경, 2017). 상징적 놀이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의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Hiladoet et al., 2021; Allan & Berry, 1987; Cattanaeh, 1995; Klem, 1992). Dora Kalff가 강조한 모래놀이치료의 자유롭고 보호적인 공간의 개념은 모래놀이치료에서 공간 그리고 치료자-내담자 관계를 더욱 안전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려는 치료자의 노력을 치유적인 것으로 만든다(장미경, 2017).의 내면 특히 무의식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다(Jung, 1984/2007). 한편으로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상은 인간 상상이라는 점에서 상상을 사용하는 심리치료에서 내담자는 안전감을 경험하며 직면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내면의 감정과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게 한다(이여름, 2021; 장미경, 2017). 이것은 놀이의 개념과 일치한다. 놀이는 상상을 아직 현실로 구체화하는 아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 앞서 안전한 공간에서 삶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Winnicott은 아동의 놀이에 중간현상이 개념을 만들었다(Winnicott, 1971). 그러나 놀이는 아동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Winnicott도 이 점에 대해 아동기의 놀이는 성인 사회의 문화와 예술로 이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Winnicott, 1971).

모래놀이이라는 예술활동은 모두 창의성, 놀이, 활성화된 상상력을 구현하며 모래놀이치료에서 창조되는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제 3의”것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 존중적 태도, 지연된 해석을 시도한다(Humphris, 2019). 모래놀이치료는 예술의 개념을 확장한 창조적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장미경, 2021; Klauck, 2021), 모래놀이치료 논문은 표현예술치료 논문을 출판하는 저널에 종종 실리기 때문에 표현예술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현예술치료는 종종 미술, 음악 등 분야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현예술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넓은 의미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창조

적 예술치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창조적 예술치료는 의미창조, 임과 위먼트, 정체성, 감정표현, 다중감각적 의사소통, 관계형성, 상호주관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Leavy, 2015/2018). 넓은 의미의 예술을 통해 자기를 실현(개성화, 전체성)하려는 원형적 충동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적 예술가의 전유물로서의 예술이 아닌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집단은 아동의 일상세계의 축소판이며(Berg, Landreth, & Fall, 2017), 집단에서 아동은 개인의 경계를 설정하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한다(Kestly, 2010). 집단은 개인의 정신 내적 수준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아동은 또래들과 “안에 있고, 함께하고, 함께하는” 독특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Moustakas, 1997). 이러한 집단은 지원과 긍정적 변화의 강력한 수단이 되며(Yalom & Leszcz, 2005), 자신의 행동을 재조정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폭력과 피난 그리고 새로운 정착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의 정서는 아동 서로에게 위로와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할 것이다(Foy, Eriksson, & Trice, 2001; Dembert & Simmer, 2000). 이것은 집단상담이 갖는 특성과 잘 맞물린다.

예술을 삶의 방식으로 보는 예술기반연구(Arts-Based Research)는 예술작품의 창작을 예술의 궁극적 목표로 하는 일반 예술의 개념과 달리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방법으로서의 예술에 의미를 둔다. Gerber와 동료들(2012)도 같은 맥락에서 예술은 항상 진실을 전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비언어적 방식, 감정, 상상력과 같은 방법을 존중하는 것이 예술기반의 철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예술에서는 창작자의 주관성을 강조하므로 예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 기존의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객관성을 강조하는 연구방법과 달리 연구자의 주관성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기정사실화 한다(Rowland, 2022, 2021). 그러나 주관성의 의미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 예술기반연구는 이 주관성의 범주에 관해 무의식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학과예술기반 연구(Jungian Arts-based Research)는 주관성에 무의식에 관한 지식을 포함시킨다(Rowland, 2022). 무의식이 상상의 근원이며 무의식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상의 투상인 상징이라고 보는 인간정신의 구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장미경, 2021, 2017). 특히 Jung의 집단무의식의 원형이미지의 배열은 정서를 동반하며 이 정서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 외부세계와의 접촉, 사물 및 관계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주며 이를 심리치료에서 사용할 경우 치유적 기능을 한다(장미경, 2017). 예술기반연구 과정에서도 예술이 갖는 치유적 기능으로 인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Rowland, 2022, 2021). 그러나 이것은 이 접근이 추구하는 궁극적 결과는 아니다. 그 점이 예술심리치료와 다른 점이다.

독립적인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Leavy(2015/2018)는 예술기반연구를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떠나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방법의 패러다임으로 보면서 동시에 질적연구방법

의 인식론과 방법론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방법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한편에는 질적연구방법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Knowles & Cole, 2008). 질적 연구방법은 실증적 연구방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로 시작되어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조차 객관성 결여라는 비판에 대항하기 위해 신뢰성 검증을 비롯한 적합성, 일관성, 중립성, 코딩방법, 범주화, 주제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 하에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미얀마 난민아동에게 집단 모래놀이치료를 제공하고 그들의 모래놀이치료 주제를 예술기반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난민아동에게 놀이라는 기회를 제공하여 외경험과 현재 삶에 대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완화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들의 모래놀이장면과 상상 이야기를 통해 내담자와 치료자가 느끼고 알아가게 된 것들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이를 통해 난민아동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UN난민기구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국제 난민학교에 재학 중 10세-13세 미얀마 친족 난민아동으로 법적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자발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언어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어가 가능한 아동으로 선별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을 집단모래놀이치료임을 고려하여 한 집단 당 8명으로 모집하였고 총 1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의 구성은 동일한 성별로 구성하여 남아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사항

연구참여자	성별/연령	말레이시아 거주 기간	연구참여자	성별/연령	말레이시아 거주 기간
A	남/12세	3년	a	여/11세	2년
B	남/11세	5년	b	여/11세	3년
C	남/11세	3년	c	여/12세	3년
D	남/12세	4년	d	여/14세	4년
E	남/11세	2년	e	여/14세	3년
F	남/12세	3년	f	여/11세	1년

집단 8명과 여아 집단 6명으로 남녀 각 1집단씩 진행하였으며, 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한 난민아동들은 한부모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래놀이치료 진행과정 중 2회 이상 불참한 참여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완전히 참여함’을 강조하는 예술기반연구의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론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자보다는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즉 연구자-참여자로서 참여하였다. 연구자-참여자들은 아동상담·심리치료 전공 박사과정으로 모래놀이치료사, 이자 놀이치료사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들은 외상 아동을 포함하여 여러 심리적·발달적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과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풍부한 경험이 있었다.

2. 연구절차

예술기반연구의 연구절차나 분석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신승렬(2015)은 연구문제 제기, 자료수집, 분석, 해석, 결과에서 각각 예술기반연구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예술적인 방법으로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연구 주제에 대한 예술작업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그 과정과 작품을 수집한다. 노래 가사, 그림, 비디오부터 참여관찰, 작품에 대한 인터뷰 등 어떤 것이든 자료가 될 수 있다(신승렬,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력과 불안정성을 경험하였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난민 아동들의 내적 경험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난민아동들에게 모래놀이치료 상자에 모래장면을 만들고 모래장면을 통해 아동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집단모래놀이치료는 2018년 2월 2주 동안 120분씩 총 5회기가 이루어졌다. Dora Kalff가 제시한 ‘자유롭게 보호받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비지시적 접근에서 반구조화된 접근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둘씩 짝을 지어 마주보게 앉은 다음 번갈아가면서 개별모래상자를 만들었다. 다 만들고나서 집단원들이 모여 모래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참여자 1인이 영어로 집단의 주 진행을 담당하였고, 보조진행자 역할과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자-참여자 1인이 참여하였다. 연구자-참여자와 연구참여자의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 연구자-참여자의 공감적 태도, 그리고 연구자가 ‘완전히 참여함’을 강조하는 예술기반연구에서 연구자-참여자는 가능한 참여자들의 자기표현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래놀이장면과 그림에 대한 상상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동일한 폭력경험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폭력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느끼고 공감하고자 하였다.

3. 자료분석

모래놀이치료 실시 전, 참여자의 개별적 발달사 및 말레이시아 정착과정에 대해 개별 면담과 담당교사의 면담을 통해 탐색하였다. 모래놀이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전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고 개별모래상자 사진을 촬영하였다. 동시에 연구자-참여자 두 명이 각각 진행, 자료수집을 위한 역할을 나누었고, 연구자-참여자2는 참여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과 모래장면에 대한 언급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자-참여자들은 난민아동들에 대한 떠오르는 사고, 정서, 느낌 등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떠오르는 상상과 느낌을 나누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난민아동이 모래놀이에서 치유되는 작업과정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모래놀이치료 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사하여 참여자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풀어쓴 기록, 그림, 관찰 기록지, 개별모래상자 사진, 아동들의 각자 상상이야기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질적연구의 주제범주 분류를 시도하였지만 참여자들의 예술기반적 작업결과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언어표현에만 집중하지 않으려 했다. 연구자-참여자들은 모래놀이치료 전 과정의 전사록, 관찰기록지 그리고 참여자의 개별 모래상자 사진, 그림 등을 참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 및 논의를 통하여 주제 및 표현에 대한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적 고려

예술기반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양적 연구나 질적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이미정, 2017). Leavy(2015/2018)는 이를 위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와 연구자가 ‘완전히 참여함’을 강조하였다. 예술기반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연구자의 상황과 연구참여자의 깊은 공감을 형성하고 혹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연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고, 연구 내적 과정의 연결성,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연구의 기본 철학에 입각한다(이미정, 2017). 연구자-참여자는 집단 모래놀이치료의 집단리더가 되어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해나갔으며,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태도로 집단모래놀이치료를 진행했다. 연구과정에서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모래사진과 축어록을 분석방법에 제시하며 해석하였다. 집단의 역동과 창조성을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깊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참여자 3인이 참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McNiff, 1998).

연구 윤리를 위하여 연구자-참여자가 연구 목적, 비밀보장 등 참여자 및 법적 보호자에게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된 서면의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고 법적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참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연구과정 중 언제든지 참여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촬영된 영상 파일의 활용과 관리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전 과정의 전사록 내용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의 연구참여자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유지하여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엄격하게 지켰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로 탈출한 미얀마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참여자들은 집단모래놀이치료 각 회기와 전 과정이 종료된 이후 난민아동의 비언어적인 표현, 모래장면 사진, 모래장면에 대한 상상이야기를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난민아동들과 함께 있었을 때 연구자에게 떠오른 생각, 감정, 느낌 등을 공유하여 자유롭게 떠오른 상상과 느낌을 나누고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난민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상호주관성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박성민 외, 2021).

난민아동의 모래놀이장면, 상상이야기, 상징이미지 등으로 나타난 공통주제는 5가지로 이는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표현된 내용들은 연구자-참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국한되지 않으며 아동참여자들의 자기이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표 2. 미얀마 난민아동의 모래놀이장면, 그림 그리고 상상이야기에서 나타난 주제와 내용

주제	내용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	외부인의 침략, 군인의 공격, 약탈, 으르렁거리는 야생동물들, 위협하는 사람들, 과거 일상생활에 대한 그리움
버려진 아이들	혼자 위험한 상황에 있는 아기, 결핍된 모성, 아픈 아기, 혼자 노는 아기, 배고픈 아기들
방관자	관찰자 영웅, 무기력한 영웅, 전쟁 속에서 쓰러진 부처상 또는 예수 동상,
안전기지	소방차, 경찰차, 공사현장, 동굴, 울타리 있는 집, 나무, 학교, 음식
해방과 재정착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동물원과 여행, 동아리, 자신의 미래 또는 현재 해야 할 일들, 친구들과의 독립, 자급자족, 파티, 휴식, 결혼식, 예배드리는 일상

1.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의 모래놀이장면, 그림 그리고 상상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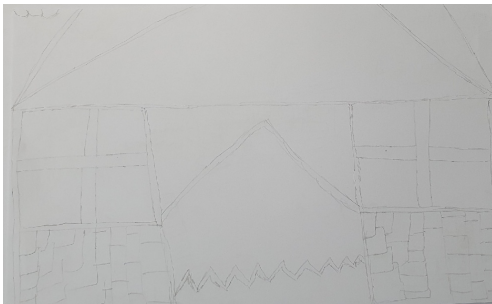
미얀마에서 살았던 친족들은 주로 자원이 풍부한 고산지대에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대부분 기독교를 믿었다(Leach, 2004). 미얀마 정부의 종교적인 탄압이 지속됨에 따라 친족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뒤로 한 채 낮은 말레이시아로 도망쳤다. 난민아동들이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은 외상으로 남아있었다. 모래놀이장면에서 아동들은 자신의 경험을 상상으로 나타내거나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아동D, 2회기



아동E, 3회기



아동A의 그림



아동C, 2회기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군대가 쳐들어왔다.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다.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날 갑자기 군대가 이 땅을 가지려고 여기 동물들을 몰아내려 왔다.” (아동D, 2회기), “여기는 미얀마에서 살던 마을이다. 이쪽은 학교이다 ... 이곳에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다 ... (왼쪽 상단 집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며) 이 집은 미얀마에서 있던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농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지냈다.” (아동E, 3회기), “전쟁이 일

어났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혔다.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 갈 수도 있다고 해서 모두 맞서서 싸우고 있다. 나쁜 애들이랑 착한 애들이 싸우고 있다. 다들 쓰러져 있고 이제 이 사람들만 남아있다.” (아동B, 1회기, 2회기), “...(중략)... 그리고 보니 제가 살았던 집이랑 비슷하네요.” (아동A의 그림 설명)

남자 아동들은 대부분 전쟁 혹은 동물이나 토착민의 땅에 쳐들어온 외부 유입 세력, 숨겨둔 보물을 약탈하려는 등의 갈등과정과 불상과 십자가에 걸린 예수상을 대립적으로 두고 전쟁을 하는 것으로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모래장면들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불의 사고처럼 아동들의 내면에 자리 잡았으며, 초반 회기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때로는 불이 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도망가고 그 와중에 싸움을 하기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뱀들이 탈출해 차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놀이하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이는 난민으로 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재 그들의 삶과 유사하게 느껴졌다.

반면 여자 아동들은 울창한 숲속에서 자신들만의 터전을 형성하여 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과거 일상생활의 장면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모래장면들은 울창한 나무들로 보호된 공간이거나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 과거 자신들이 살던 곳, 학교, 가족 등을 모래상자에 나타내면서 언어적으로도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는 갈 수 없는 자신들의 사라져버린 터전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그리움 속에도 아동들의 트라우마의 기억이 연합되어 있었다. 과거 삶의 터전이었던 숲속을 표현하면서도 건물이나 나무에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는 아이들과 동굴 속에 숨어있는 으르렁거리는 위협적인 늑대는 동시에 긴장감과 불안감이 느껴진다. 또 다른 모래장면에서는 과거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검을 든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는 장면이 함께 등장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원래 살던 곳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탈출해온 난민아동들은 일부 가족원이 사망하거나 갑작스럽게 분리되는 경험을 하면서 내재된 상실감과 슬픔이 느껴졌다.

난민아동들의 모래장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모래장면과는 차이를 보였다. 네팔 지진을 겪은 청소년들의 모래상자에서는 자연재해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정글에 살던 공룡 혹은 괴물들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면(이세화, 장미경, 2019), 난민아동들의 모래상자에서는 동물들이 사는 정글에 군인 혹은 새로운 세력이 침입하여 동물들을 공격하였다. 이는 자연재해와 인재에 대한 차이를 보여준다.

상상이야기에서 대부분의 난민아동들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동물들의 땅에 갑자기 군인들이 총을 들고 쳐들어오거나 토착민들이 사는 곳에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 노예로 잡아가는 등 상반된 집단의 싸움을 언급하였다. 상반된 집단 중 하나는 무기를 소지한 채 무장

된 군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동물이거나 활과 창을 사용하는 토착민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난민아동들의 모래장면과 상상이야기에서 연구자는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외부 집단의 강압적인 폭력과 공격으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트라우마는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난민아동들은 자신들의 모래장면과 상상이야기를 집단원들과 공유하였을 때, 자신의 이야기와 다른 아동들의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연구자에게 모래장면에서 연상되는 자신의 삶과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외상사건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외상사건에 대해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외상사건에 대하여 다른 집단원들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집단원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이러한 상상 이야기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외상 사건과 안전한 거리를 제공하고, 외상에 대하여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도록 이끌었다(Crenshaw & Hardy, 2007).

2. '버려진 아이들'의 모래놀이장면 그림, 그리고 상상이야기

전쟁,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협에 처하는 것은 아동들이다. 난민아동들의 모래놀이 장면에서도 버려지거나 위협에 처한 아이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가족 혹은 나라로부터 버려진 자신들의 모습을 위협에 처한 아기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위협에 처한 아기들은 더 강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며 이는 그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투사된 것처럼 보였다. 즉 이는 그들의 모성적 결핍에 대한 욕구 표현이다. 이들은 대부분 말레이시아로 탈출하는 과정 혹은 이주 전후 부모 모두 사망하거나 한쪽 부모만 있고 다른 한 부모와의 이별 등을 경험하였다.

남자 아동들은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기들이 등장한다. 불이 난 곳에 있는 아기는 누군가가 구해줄 수 없다고 한다. 혹은 홀로 배에 놓여진 채 다른 먼 곳으로 가는 아기가 나타났다. 반면 여자 아동들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기보다는 방임적으로 놓여있는 아기가 등장한다. 아기들은 보호자 없이 놀고 있거나 혹은 보호자는 멀리 떨어져 있고 아이들끼리만 놀고 있다.

“여기 안에 아기가 있어요. 위험한데 부모는 모르고 있어요. 다들 아이를 구해주려고 하지만 구하기 힘들어요.” (아동E, 3회기), “아기들끼리만 놀고 있어요. 아무도 아기를 봐주지 않아요. 어른들은 각자 쉬거나 자신의 일하기 바빠서 누나가 애네들을 봐줘요.” (아동F, 2회기), “아이들은 각자 돌봐야 하는 동물들이 있어서 지금은 먹이를 주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돌아다니지만, 어른

들은 함께 하지 않아요. 아이들뿐이에요.. 여기 친구들과하고 저만 있는 거예요...” (아동a, 3회기). “여기엔 나랑 친구들만 있어요.” (아동u의 그림 설명)

난민아동들은 무차별적인 미얀마 정부의 탄압으로 그들의 터전을 잃으면서 갑작스럽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빠르게 성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도록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삶의 방향은 고아원형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소속감을 찾아가고자 한다. 고아원형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과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으로 가득한 심리적 추방자로서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Pearson, 1998/2020). 난민아동들은 실제로도 고아지만 심리적으로도 고아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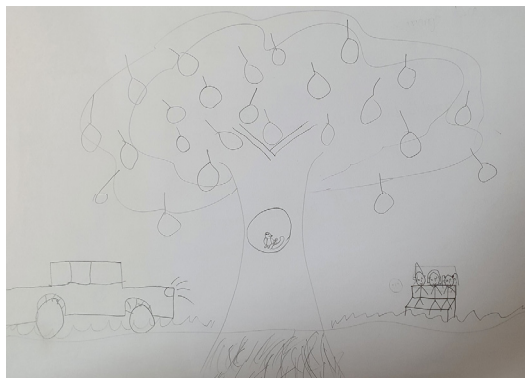
그러나 고립, 고뇌, 절망의 감정을 동반하는 고아원형의 배열은 자신과 세상에서 혼자라는 느낌의 창조적 잠재력을 탐구하도록 이끌며, 스스로 회복하는 에너지가 활성화하도록 돕기도 한다(Punnett, 2014). Jung이 완전히 버림받은 고독한 상태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의 도움이 되는 힘을 경험한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난민아동의 모래장면과 상상이야기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고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 등은 그들의 외상을 극복하려는 회복



아동E, 3회기 남



아동f, 2회기



아동a의 그림



아동a 3회기

과 성숙을 향한 성장하는 여정의 촉매제를 의미한다. 난민아동들은 집단모래놀이치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기를 구출하거나 아픈 아기를 치료해주거나 혼자 놀고 있는 아기를 돌보는 대상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난민아동들의 고아 됨의 고립감, 외로움 등 내재된 감정이 연구자들의 상상과 느낌으로 다시금 느껴졌다. 연구자들은 초기 난민아동들이 놀이에 몰두하는 편으로 내재된 트라우마를 토해내듯 그들끼리만 놀이하는 것과 같이 느꼈다. 이때는 다소 난민아동들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으며, 아동들의 내면을 충분히 공감하는 데 다소 어려움도 있었다. 외상을 경험한 난민아동들은 연구자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외상에 대하여 털어놓고 싶은 열망과 동시에 자신들의 외상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연구자-참여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두려는 열망 사이에서 갈등적인 태도를 느끼기도 하였다.

연구자-참여자들은 초기 난민아동들과 라포형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떨어진 느낌과 난민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버거웠던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아동들의 특징 중 하나가 성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외상 사건이 아동의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관계의 결속을 단절시키고 중요한 대상에 대한 신뢰 또는 믿음에 손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Perry & Szalavitz, 2006; Dayton, 2000). 이렇게 외상 사건으로 인해 친밀한 관계의 끊어짐을 겪은 아동들은 안전, 신뢰, 가치감을 상실하는 경험을 한다. 이는 연구참여자에게도 느껴졌으며, 초기 부정적이거나 너무 몰입되어있는 정서로 인한 상호교류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연구자-참여자들이 난민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도록 작용된 것이다.

3. '방관자'의 모래놀이장면, 그림 그리고 상상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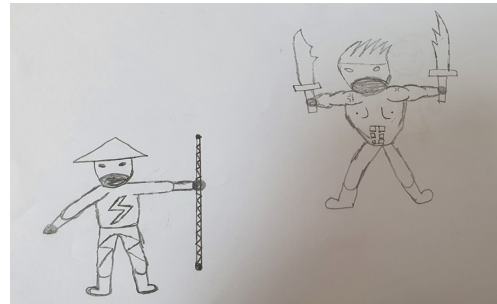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스파이더맨, 슈퍼맨 등의 영웅이 등장하지만 영웅들은 나무 위에서 싸우고 있는 장면을 관찰하며 방관하고 있거나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또한 등장하는 신의 모습은 대부분 동상으로 남아있다. 여자 아동들의 모래장면에서는 영웅은 등장하지 않지만 신, 교회, 십자가 등이 등장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모습이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며 사람들이 찾아갈 수만 있다. 이러한 모래장면은 직간접적인 상실을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외상 사건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침묵하며(Ayyash-Abdo, 2001),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것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내면세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아동기 외상성 슬픔은 특징적인 외상관련 증상이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생활 터전의 파괴로 인한 상실에 대하여 애도하

는 아동의 능력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한다(Cohen et al., 2002). 난민아동들은 나쁜 사람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기도로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거대한 두려움에 맞서 싸우며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대처하려는 에너지가 멈춰버린 것처럼 신이나 히어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방관자 주제는 도덕적, 정치적 주제를 내포하는 트라우마로 특히 인간이 가한 잔혹함에서 무력한 사람들은 ‘힘없는 자의 고통’으로 내재된다(Herman, 1997). 그러므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움직임과의 연결이나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만 외상 회복의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Herman, 1997, p.237).



아동A, 1회기



아동C의 그림



아동E, 1회기



아동b, 4회기

“전쟁이나서 아래 포로들이 잡혀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사람들은 다 잡은거죠. 불상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세죠. 여기는 예수님 팀이에요..다들 쓰러져 있어요.” (아동A, 1회기), “군인들이 숲속 깊은 곳으로 쳐들어왔어요. 동물들은 막으려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스파이더맨은 그냥 보고만 있어요. 몰래 쳐다만 보고 있는거예요.” (아동D, 2회기) “피곤한 수퍼맨이에요..”(아동E, 1회기), “싸우러 나가야하는데 아직 멍부리고 있어요.” (아동C이 그림 설명)

주변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웅들은 피곤한 상태이거나 가만히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 그들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들과 자신의 소진된 상태와 연결할 수 있다. 그들의 자아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측면인 것이다.

집단 모래놀이치료 회기 동안 아동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중 다시 미안마로 돌아가서 선생님을 하거나 거기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외상에 압도당하지 않은 채 자신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 문제는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측면의 원인으로 어느 개인이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아동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난민아동은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 환경과 객관적 환경을 통합하여 그 환경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4. '안전기지'의 모래놀이장면, 그림, 그리고 상상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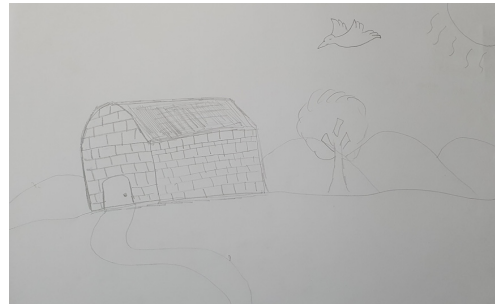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회복의 에너지가 여러 상징들로 표현되었다. 초반 모래장면에서는 구조할 수 없는 아기였지만 회기가 진행된 이후 모래장면에서는 소방차가 아기를 구조하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하려는 등의 소방차와 경찰차의 모습, 생명과 회복의 상징인 의사와 간호사가 다친 아기를 치료하려고 대기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활동이나 치료행위는 아동들의 치유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치유 에너지는 트라우마에 대한 관련된 경험이나 감정들이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반추가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역정의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과거 삶을 되돌아보는 자의적인 성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임선영, 2020). 이러한 건설적인 사고활동은 성장을 촉진하며,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며 이해할 수 있는 신념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Martin & Tesser, 1996).

이는 여자 아동들도 유사하게 표현되었으며 좀 더 현실적 경험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난민학교 목사님이 등장하고, 울타리가 있는 집과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나무들을 통해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다. 또한 음식 피겨들이 계속 등장하며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표현하였다. 외상에서 회복으로 가는 경로를 따르는 것은 지지적인 환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Yehuda, 2004). 난민아동들에게 난민학교와 종교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지지로서 외상 회복에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여기는 화산이 폭발해서 집이 불타고 있어요. 소방관은 아기를 구해서 여기(인큐베이터)에 실고 옮기고 있어요. 아기를 무사히 구했어요. 밖은 의사랑 간호사는 다친 아기를 치료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동B, 3회기),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파티 중이에요. 먹을 것이 충분하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저랑 동생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기르고 있는 집이에요.” (아동c, 4회기), “여기는 새로운 것을 지으려고 공사 중이에요. (어떤 것이 지어지고 있는 거야?) 음.. 수영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다 퍼 나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걸 부인이 보고 놀랐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신고해서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왔어요. 이제 그를 구할 수 있어요.” (아동C, 2회기), “...(중략)... 아기 돼지 삼형제의 막내 집처럼 튼튼해요.” (아동G의 그림 설명)



아동B, 3회기



아동G의 그림



아동C, 2회기



아동a 2회기

난민아동들의 상상이야기에서는 잘 차려진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을 재건하려는 공사현장 그리고 재난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이나 의료진이 등장하였다. 아동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비폭력적인 대안과 전략을 탐색하거나 아동들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일관되게 충족되지 않은 결핍으로 인해 상징적으로 음식을 먹고 요리하고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을 만들고 치료하는 것과 같

은 놀이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아동들은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치유하는 대상과 회복시키는 대상 또는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따뜻함을 주는 대상이 존재하며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안전기지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마치 어린 아기가 힘들고 불안할 때 부모를 찾아와 안전을 느끼며 이를 토대로 주변을 탐색하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성장하듯 모래놀이와 상상이야기를 통해 난민아동들 또한 불안정한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안전과 안정을 위한 피난처이면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속에 ‘안전기지’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난민 아동들과 안전한 관계 안에서 그들의 상실감과 유기의 감정들이 정화 되어감을 느끼며, 그들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5. ‘해방과 재정착’의 모래놀이장면, 그림 그리고 상상이야기

해방은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난민아동들은 미얀마 정부의 오랜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거나 외상과 얼어붙은 자신의 감정이 해방하는 모래놀이장면과 이야기가 표현되었다. 위험한 곳을 벗어나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난민의 지위를 받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이 난민 지위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 즉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역시 어떠한 지위도 없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있으며,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확인받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난민아동들은 회기가 지날수록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일상생활에 있던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바람 등에 대해 표현하였다. 모래놀이와 상상이야기는 그들의 제한적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서 또는 수단을 제공한다.

남자 아동들은 새로운 곳, 더 넓은 곳으로 이주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지금 불안정한 곳보다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가기를 원하였으며 이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는 등으로 표현되었다. 여자 아동들은 숲속에서의 독립된 생활을 이야기하였다. 친한 친구들과 독립하여 각자의 집을 가지거나 혹은 같이 살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충분한 가축과 나무 등을 표현하였다. 또한 숲에 둘러싸여 있는 집에서 살고 있으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였다. 집은 안전하고 쉼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안과 밖을 구분하기도 하며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의식의 주체인 자아를 상징하기도 한다(Bradway, 2001). 자아는 외부 세계에서 적응하거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급자족의 환경 속에서 아동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며 돌보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외상 경험과 관련된 감정이나 기억을 다루며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의 삶을 향

해 나아간다.

“예전에 다 같이 학교에서 동물원을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은 다 동물들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물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동물들을 보고싶다면 볼 수 있어요.” (아동D, 4회기), “친구들이랑 여행와서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호수는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해볼 수도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해요.” (아동e, 4회기), “모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학교에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여기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목사님이 있고, 모두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모인거예요.” (아동b, 5회기)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다들 줄을 서 있는 것이에요.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 가고 싶어요.” (아동F, 4회기), “동생과 둘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숲 안 깊숙이 있는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라서 좋아요.” (아동f, 3회기), “여기는 지금 공사중이에요. 모래를 퍼나르고 나무를 베어서 새로운 마을이 생겨날 거예요.” (아동C, 4회기), “제 집이에요. 울타리도 있고, 차도 있어요. 차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아동F의 그림 설명)



아동F, 4회기



아동f, 3회기



아동F의 그림



아동e, 4회기

남자 아동들은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했던 가장 즐거웠던 경험을 표현하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간 동물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미래 또는 현재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여자 아동들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거나, 학교 친목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활동들을 지속하고 싶다고 하였다.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모래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울타리는 외부의 공간으로부터 내부의 공간을 보호하고 이를 통제하는 것을 상징하며(Cooper, 1978), 그들의 외상경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내면을 공고히 다지면서 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울타리 안의 동물들이나 식물과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아동들의 본능적 에너지에 대하여 그들의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아동들의 성장한 자아 기능은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난민아동들의 상상이야기에서는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어디로 갈 수 있는 비행기와 차, 자신이 원하던 ‘마이 드림 하우스’ 등 그들의 자율성이 회복되고 있었다. 개인의 독립적인 자율의지가 회복되는 것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자신의 통제감을 경험해 본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친족 난민아동들의 집단심리치료 과정에 관한 것으로 예술기반연구의 관점에서 집단모래놀이치료, 상상이야기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참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아동들의 창조과정 및 그에 따른 의미이해에 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미얀마 난민아동의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는 사라져 버린 삶의 터전, 버려진 아이들, 방관자, 안전기지, 해방과 재정착으로 총 5가지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난민아동에 대한 예술기반연구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패러다임에서 접근하였다. 기존에 난민관련 연구는 그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양적연구, 질적 사례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Akthar & Lovell, 2019; Kronick, Rousseau, & Cleveland, 2018; Fazel & Stein, 2002).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난민아동들이 난민이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난민으로서의 삶에서 한 경험을 예술기반연구를 통해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그것들이 난민아동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래놀이장면에 표현된 상징과 상상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예술기반연구 자체의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난민아동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들에 대한 치유적 접근뿐 아니라 외상에 대한 자신

의 자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연구참여자들은 다민족 국가인 미얀마의 친족 아동으로 자신들과 다른 난민들과의 다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친족 아동들과 유사하게 미얀마의 무차별적인 종교 탄압의 외상경험을 경험한 로힝야족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모래놀이치료를 진행했던 이세화와 장미경의 연구(2020)와 비교할 수 있다. 로힝야족 난민아동들은 끊임없이 피난과정에서 외상사건을 보트피플의 생존과 끊임없는 싸움 등으로 표현하면서 폭력과 공격적인 장면이 남아와 여아 모두의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주로 나타났다. 반면, 친족 난민아동은 폭력적 장면이 아니라 평화로운 숲속이 이들의 터전이었던 친족 아동들은 숲속 터전을 빼앗기고 떠도는 난민으로 내던져진 상황을 표현하였으며 과거 숲속에서의 삶과 재정착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회복하려는 시도를 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서도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문화는 일찍이 기독교화 되는 과정을 겪었고 로힝야족은 이슬람교 전통을 갖고 있다.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기독교 태도를 갖고 있는 문화의 경험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난민아동들은 외상경험을 모래놀이와 그림, 상상이야기로 표현하면서 외상에 압도되지 않은 채로 자신들의 외상을 다루는 심리적 작업을 해나갔다. 예술적 창조과정은 외상의 영향으로부터 거리감을 갖고 창조적 표현을 통해 적응적 대처 기술과 독립심을 증진하게 하여 분리된 생각과 감정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Malchiodi, 2015). 이러한 표현 과정은 그들의 상상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 과정 그 자체이다. 아동들의 모래놀이장면과 상상의 이야기는 점차 정리되어갔으며, 언어적 표현으로도 정리되어 갔다. 과거의 외상경험을 이미 발생한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리하며 ‘지금’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기도 하였다. 난민아동들이 모래놀이장면을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서 자신의 경험을 상징물을 사용하여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면서 의식에서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Siegel, 2001). 이는 외상에 대하여 놀이 및 예술 표현과 같은 감각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들(Southwell, 2016; Quinlan et al., 2016; Green, 2011; Malchiodi, 2008)과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모래놀이치료가 난민아동들의 암묵적(비언어적) 기억을 변환하여 감정을 통합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심리치료로서 적절한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난민아동들은 안전한 집단 안에서 외상, 재정착 등과 관련하여 감정들을 함께 나누며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상호주관적으로 다른 아동들 그리고 연구자-참여자와의 심리적 동맹을 통해 정서적 교감과 지지를 교정을 경험하였다(Schore, 2021). 난민아동들은 모래놀이치료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이 과거의 것임을 인식하였다. 또한 외상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새롭게 대항하는 내면의 정서적 보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모래놀이치료 작업을 통해 이 과정을 도울 수 있음을 알았다.

예술기반적 연구방법은 심리치료는 아니지만 예술기반적 접근은 언어가 다른 새로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언어 표현에 한계가 있는 아동들에게 개입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그러한 관점에서 난민아동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기반연구방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예술기반연구는 예술적 창조과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융통성 있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여 임상 현장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다. 연구자-참여자는 예술기반연구를 통해 ‘예술적 · 치료적’ 고유성을 전달하며(소혜진, 2019) 동시에 학문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 · 치료적 고유성과 학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은 사실 개인에 대한 개성과 개별적 이해를 배제시키는 태도이다.

또한 예술기반연구자는 연구자-참여자로서의 관점과 역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예술기반연구는 예술적 방법을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Baden & Wimpenny, 2014).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참여자가 상상력과 통찰력이 연구의 방법이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가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지선, 서미아 (2020). 자살 행동 남성 알코올중독자의 삶에 대한 예술기반 내러티브 탐구. 상담학연구, 21(3), 115-136. <https://doi.org/10.15703/kjc.21.3.202006.115>.
- 박성민, 조 윤, 정현경 (2021). COVID-19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의 집단모래놀이치료에 대한 예술기반 연구.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2(1), 175-234. <https://doi.org/10.12964/jst.21005>.
- 박소정 (2020).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통한 자살사고에 대한 예술기반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3(3), 111-162.
- 서문영 (2007). 집단놀이치료에 의한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 ·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 존중감, 정서적 부적응과 이혼지각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혜진 (2019). 집단예술치료에서의 신체움직임 경험. 무용예술학연구, 76(4), 53-73. <https://doi.org/10.16877/kjds.75.3.201909.53>.
- 신승렬 (2015). 연구방법론의 탈중심성: 예술기반 연구의 방법론적 이해와 적용. 제 16회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추계 발표집. 11-19.
- 이미정 (2017). 예술기반 연구방법에서 바라보는 예술의 가치. 미술교육연구논총, 50, 47-72.

- 이부연, 장미경 (2015).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심리적 주제 및 이야기 표현 비교. *아동복지연구*, 13(4), 61-72.
- 이세화, 장미경 (2018). 말레이시아 거주 로힝야족 난민아동의 집단모래놀이치료 주제 및 상징연구.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9(1), 53-70. <https://doi.org/10.12964/jsst.18004>.
- 이여름 (2021). 놀이치료 과정에서 치료자의 치유정점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선영 (2020).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위한 연구 고찰: 외상 후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1019-1041. <https://doi.org/10.23844/kjcp.2020.05.32.2.1019>.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장미경, 이여름 (2020). 놀이의 신성성과 치유 목적성.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1(2), 1-43. <https://doi.org/10.12964/jsst.20006>.
- 한겨레21 (2021년 11월 9일). ‘친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1182.html. 2022년 3월 10일 검색.
- Akthar, Z., & Lovell, A. (2019). Art therapy with refugee children: A qualitative study explored through the lens of art therapists and their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Therapy*, 24(3), 139-148. <https://doi.org/10.1080/17454832.2018.1533571>.
- Alexander, A. (2008) Without refuge: Chin refugees in India and Malaysia. *Forced Migration Review*, 30, 36-37. http://www.norwaychin.no/wp-content/uploads/2013/10/Chin-refugee_Alexander-Amy.pdf. 2022년 3월 11일 검색.
- Allan, J., & Berry, P. (1987). Sand play.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1(4), 301-307.
- Ayyash-Abdo, H. (2001). Childhood bereavement: What school psychologists need to know.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4), 417-433. <https://doi.org/10.1177/0143034301224003>.
- Berg, R. C., Landreth, G. L., & Fall, K. A. (2017). *Group Counseling: Concepts and Procedures* (6th ed.). New York, NY: Routledge.
- Bradway, K. (2001). Symbol dictionary: Symbolic meanings of sandplay images.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0(1), 9-110.
- Brune, M., Haasen, C., Krausz, M., Yagdiran, O., Bustos, E., & Eisenman, D. (2002). Belief systems as coping factors for traumatized refugees: A pilot study. *European Psychiatry*, 17(8), 451-458. [https://doi.org/10.1016/S0924-9338\(02\)00708-3](https://doi.org/10.1016/S0924-9338(02)00708-3).
- Brune, M., Haasen, C., Yagdiran, O., & Bustos, E. (2003). Treatment of drug addiction in traumatised refugees. *European addiction research*, 9(3), 144-146. <https://doi.org/10.1159/000070985>.
- Castellana, F., & Donfrancesco, A. (2005). Sandplay in Jungian analysis: matter and symbolic

- integration 1.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50(3), 367-382.
<https://doi.org/10.1111/j.0021-8774.2005.00538.x>.
- Cohen, J. A., Mannarino, A. P., Greenberg, T., Padlo, S., & Shipley, C. (2002). Childhood traumatic grief: Concepts and controversies. *Trauma, Violence, & Abuse*, 3(4), 307-327.
<https://doi.org/10.1177/15248380>.
-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NY: Thames & Hudson. 이윤기 (2012).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서울: 까치글방.
- Grenshaw, D. A., & Hardy, K. V. (2007). The crucial role of empathy in breaking the silence of traumatized children in play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6(2), 160-175.
<https://doi.org/10.1037/1555-6824.16.2.160>.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06).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avies, M., & Webb, E. (2000). Promo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fugee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 541-554. <https://doi.org/10.1177/1359104500005004008>.
- Dayton, T. (2000). *Trauma and addiction: Ending the cycle of pain through emotional literacy*.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
- Dembert, M. L., & Simmer, E. D. (2000). *When trauma affects a community: Group interventions and support after a disaster*. In Group psychiatric treatment for psychological trauma (pp. 239-264). New York, NY: Guilford Press.
- Fazel, M., & Stein, A. (2002). The mental health of refugee children.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87(5), 366-370. <http://dx.doi.org/10.1136/adc.87.5.366>.
- Foy, D. W., Eriksson, C. B., & Trice, G. A. (2001). Introduction to group interventions for trauma survivors.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5(4), 246.
<https://doi.org/10.1037/1089-2699.5.4.246>.
- Gerber, N., Templeton, E., Chilton, G., Liebman, M. C., Manders, E., & Shim, M. (2012). Art-based research as a pedagogical approach to studying intersubjectivity in the creative arts therapies. *Journal of Applied Arts & Health*, 3(1), 39-48. https://doi.org/10.1386/jaah.3.1.39_1.
- Green, A. (2011). Art and music therapy for trauma survivors. *Canadian Art Therapy Association Journal*, 24(2), 14-19. <https://doi.org/10.1080/08322473.2011.11415547>.
- Hargreaves, S., Holmes, A., & Friedland, J. S. (2003). The United Kingdom's experience of providing health care for refugees: time for international standards?. *Journal of Travel Medicine*, 10(2), 73-74. <https://doi.org/10.2310/7060.2003.31635>.
- Herman, J. (1997).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NY: Basic Books.

- Hilado, A., Chu, A., & Magrisso, A. (2021). *Treatment for refuge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Refugee mental health*. (pp. 215-25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0000226-009>.
- Hodes, M. (2000). Psychologically distressed refugee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Review*, 5(2), 57-68. <https://doi.org/10.1017/S136064170000215X>.
- Humphris, M. (2019). Sandplay and Art: Embodying the Creative Process. *Jung Journal*, 13(3), 143-155. <https://doi-org.ezproxyles.flo.org/10.1037/0000226-009>.
- Jang, M., & Kim, Y. H. (2012). The effect of group sandplay therapy on the social anxiety, loneliness and self-expression of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in South Korea. *The Arts in Psychotherapy*, 39(1), 38-41. <https://doi.org/10.1016/j.aip.2011.11.008>.
- Jung, C. G. (1984/2007).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Erlösungsvorstellungen in der Alchemie. 한국 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서 6권. 서울출판사.
- Kestly, T. (2010). *Group sandplay in elementary schools*. In A. Drewes & C. Schaefer (Eds.), *School-based play therapy* (2nd ed., 237-256). Hoboken, NJ: Wiley.
- Knowles, J. G., & Cole, A. L. (2008). *Handbook of the arts in qualitative research: Perspectives, methodologies, examples, and issue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Kio, H (2008). FLEEING BURMA WHERE LIFE IS AT RISK.
<http://www.chro.ca/index.php/resources/refugee-issues/293-fleeing-burma-where-life-is-at-risk8>. 2021년 11월 13일 검색.
- Klem, P. R. (1992). The use of the dollhouse as an effective disclosure techniqu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 69-73. <https://doi.org/10.1037/H0090236>.
- Klauck, L. (2021). How Art Therapy Can Ethically Address Symptoms of Trauma with Asylum Seekers and Refugees, A Literature Review. *Expressive Therapies Capstone Theses*. 389.
https://digitalcommons.lesley.edu/expressive_theses/389. 2022년 3월 8일 검색.
- Kok, J. K., Lee, M. N., & Low, S. K. (2017). Coping abilities and social support of Myanmar teenage refugees in Malaysia.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2(1), 71-80.
<https://doi.org/10.1080/17450128.2016.1263774>.
- Kronick, R., Rousseau, C., & Cleveland, J. (2018). Refugee children's sandplay narratives in immigration detention in Canada.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7(4), 423-437.
<https://doi.org/10.1007/s00787-017-1012-0>.
- Lacroix, L., Rousseau, C., Gauthier, M. F., Singh, A., Giguère, N., & Lemzoudi, Y. (2007). Immigrant and refugee preschoolers' sandplay representations of the tsunami. *The Arts in Psychotherapy*, 34(2), 99-113. <https://doi.org/10.1016/j.aip.2006.09.006>.

- Leach, E. R. (2004).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A Study of Kachin Social Structure A Study Of Kachin Social Structure*. New York, NY: Routledge.
- Leavy, P. (2015/2018). *Method meets art: Arts-based research practice*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김정희 (2018). (역). 예술기반 연구의 실제. 서울: 학지사.
- Lim, S. L., & Ogawa, Y. (2014). "Once I had kids, now I am raising kids": Child-Parent Relationship Therapy (CPRT) with a Sudanese refugee family-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3(2), 70-89. <https://doi.org/10.1037/a0036362>.
- Low, S. K., Tan, S. A., Kok, J. K., Nainee, S., & Viapude, G. N. (2018).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 refugees in Malaysia.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4(2), 428-439. <https://dx.doi.org/10.20319/pijss.2018.42.428439>.
- Lustig, S. L., Kia-Keating, M., Knight, W. G., Geltman, P., Ellis, H., Kinzie, J. D., ... & Saxe, G. N. (2004). Review of child and adolescent refugee mental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1), 24-36. <https://doi.org/10.1097/00004583-200401000-00012>.
- Maršanić, V. B., Franić, T., & Ćurković, K. D. (2017). Mental health issues of refugee children: lessons from Croatia.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6(3), 377-381. <https://doi.org/10.1007/s00787-016-0924-4>.
- Malchiodi, C. A. (2015). *Neurobiology, creative interventions, and childhood trauma*. In C. A. Malchiodi (Ed.), *Creative interventions with traumatized children* (pp. 3-2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alchiodi, C. A. (2008). *Creative interventions and childhood trauma*. In C. A. Malchiodi (Ed.), *Creative interventions with traumatized children* (pp. 3-21).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artin, L., & Tesser, A. (1996). *Some ruminative thoughts*. In Wyer, R. S. (Ed.),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9, 1-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Mckelvey, R. S., & Webb, J. A. (1995). Unaccompanied status as a risk factor in Vietnamese Amerasians. *Social Science & Medicine*, 41(2), 261-266. [https://doi.org/10.1016/0277-9536\(94\)00314-J](https://doi.org/10.1016/0277-9536(94)00314-J).
- Mekki-Berrada, A., Rousseau, C., & Bertot, J. (2001). Research on refugees: Means of transmitting suffering and forging social bond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30(2), 41-57. <https://doi.org/10.1080/00207411.2001.11449518>.
- Moustakas, C. (1997). *Relationship play therapy*. Northvale, NJ: Aronson.
- O'Conner, K. L. (2001). *Play therapy primer* (2nd ed.).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Inc.
- O'shea, B., Hodes, M., Down, G., & Bramley, J. (2000). A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 for Refugee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 189-201. <https://doi.org/10.1177/1359104500005002004>.

- Panther-Brick, C., Grimon, MP., & Eggerman, M. (2014). Caregiver-child mental health: A prospective study in conflict and refugee setting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5(4), 313-327. <https://doi.org/10.1111/jcpp.12167>.
- Papadopoulos, R. K. (2001). Refugee families: Issues of systemic supervision. *Journal of family Therapy*, 23(4), 405-422. <https://doi.org/10.1111/1467-6427.00193>.
- Pearson, C. (1998/2020). *Hero Within - Rev. & Expanded Ed.: Six Archetypes We Live By*. New York, NY: HarperCollins. 류시화 (2020). (역). 나는 나 (내 인생의 셀프 심리학). 서울: 연금술사.
- Perry, B., & Szalavitz, M. (2006). *The boy who was raised as a dog(And other stories from a child psychiatrist's notebook: What traumatized children can teach us about loss, love, and healing)*. New York, NY: Basic Books.
- Punnett, A. (2014). *The orphan: A journey to wholeness*. Carmel, CA: Fisher King Press.
- Quinlan, R., Schweitzer, R. D., Khawaja, N., & Griffin, J. (2016). Evaluation of a school-based creative arts therapy program for adolescents from refugee backgrounds. *The Arts in Psychotherapy*, 47, 72-78. <https://doi.org/10.1016/j.aip.2015.09.006>.
- Roesler, C. (2019). Sandplay therapy: An overview of theory, applications and evidence base. *The arts in Psychotherapy*, 64, 84-94. <https://doi.org/10.1016/j.aip.2019.04.001>.
- Rowland, R. & Weishaus, J. (2021). *Jungian arts-based research and the nuclear enchantment of New Mexico*. London/New York: Routledge.
- Rowland, R. (2022). 융학과예술기반연구: 개념, 근거 및 방법(Jungian Arts-Based Research: What it is, Why do it, and How).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3(1), 19-34. <https://doi.org/10.12964/jsst.22001>.
- Schore, A. (2021). 우뇌에서 우뇌로의 심리치료: 최신 임상 및 연구진전을 반영함(Right Brain-to-Right Brain Psychotherapy: Recent Clinical and Scientific Advances).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2(2), 13-22. <https://doi.org/10.12964/jsst.21007>.
- Shonkoff, J. P., Garner, A. S., Committee on Psychosocial Aspects of Child and Family Health, Committee on Early Childhood, Adoption, and Dependent Care, and Section on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Siegel, B. S., Dobbins, M. I., Earls, M. F., ... & Wood, D. L. (2012).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Pediatrics*, 129(1), e232-e246. <https://doi.org/10.1542/peds.2011-2663>
- Siegel, D. J. (2001). Toward an interpersonal neurobiology of the developing mind: Attachment relationships, "mindsight," and neural integra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1/2), 67-94. [https://doi.org/10.1002/1097-0355\(200101/04\)22:1<67::AID-IMHJ3>3.0.CO;2-G](https://doi.org/10.1002/1097-0355(200101/04)22:1<67::AID-IMHJ3>3.0.CO;2-G).
- Southwell, J. (2016). Using 'expressive therapies' to treat developmental trauma and attachment

- problems in preschool-aged children. *Children Australia*, 41(2), 114-125.
<https://doi.org/10.1017/cha.2016.7>.
- Sourander, A. (1998). Behavior problems and traumatic events of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Child abuse & neglect*, 22(7), 719-727. DOI: [https://doi.org/10.1016/S0145-2134\(98\)00053-2](https://doi.org/10.1016/S0145-2134(98)00053-2).
- Turner, S. W., Bowie, C., Dunn, G., Shapo, L., & Yule, W. (2003). Mental health of Kosovan Albanian refugees in the UK.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2(5), 444-448.
<https://doi.org/10.1192/bjp.182.5.444>.
- Ugurlu, N., Akca, L., & Acarturk, C. (2016). An art therapy intervention for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Syrian refugee children.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1(2), 89-102. <https://doi.org/10.1080/17450128.2016.1181288>.
- UNHCR (2018). Figures at a Glance in Malaysia.
<http://www.unhcr.org/en-my/figures-at-a-glance-in-malaysia.html?query=myanmar> 2021년 10월 11일 검색.
- UNHCR (2017). <http://www.unhcr.or.kr/> 2020년 9월 5일 검색.
- UNHCR (2016). Global Report 2016. UNHCR
- Unterhitzenberger, J., Eberle-Sejari, R., Rassenhofer, M., Sukale, T., Rosner, R., & Goldbeck, L. (2015). 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with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a case series. *BMC Psychiatry*, 15(1), 260. <https://doi.org/10.1186/s12888-015-0645-0>.
- Veronese, G., Pepe, A., Jaradah, A., Al Muranak, F., & Hamdouna, H. (2017). Modelling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trauma in children exposed to ongoing military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in Palestine. *Child abuse & neglect*, 63, 61-72.
<https://doi.org/10.1016/j.chiabu.2016.11.018>.
- Wang, D., Nan, J. K., & Zhang, R. (2017). Structured group sandplay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A pilot study. *Arts in Psychotherapy*, 55, 186-194.
<https://doi.org/10.1016/j.aip.2017.04.006>.
- Winnicott, D. (1971). *Play and reality*. New York, NY: Basic Books.
- Yalom, I.,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5th ed.). New York, NY: Basic Books.
- Yehuda, R. (2004). Risk and resilienc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5, 29-36.

투고일 : 2022. 03. 30

수정일 : 2022. 06. 03

게재확정일 : 2022. 06. 04

Art-based Research on Group Sandplay Therapy for Myanmar Refugee Children Staying in Malaysia

Yeoreum Lee^{*} Sehwa Lee^{**} Mikyung Jang^{***} Yelin Choi^{****}

This study is based on the group sandplay therapy that we provided to Burmese Chin children living in Malaysia as ethnic and religious refugees and our analysis of the themes in the children's sandboxes using an art-based research method. All the participants were Burmese Chin refugee children aged 10 to 13 years old, attending an international refugee school in Kuala Lumpur, the capital of Malaysia. Participation was voluntary, with written consent from legal guardians. The sample chosen for the study comprised 12 children, with six males in one group and six females in the other group. Altogether, the children took part in five sandplay sessions, which lasted 120 minutes each. During these sessions, all the participants expressed individual the sandtray and then gathered to share and talk about the scenes they had made in the sand. After each session, it construed the children's sand scenes, imaginative stories and symbolic image from an analytical psychology perspective and categorized the contents by common themes. As a result, six themes emerged: the loss of a place of life, abandoned children, bystanders, safety bases, and liberation/resettlement. Through the sandplay therapy, the refugee children could express their trauma in a safe, supportive environment. Sandplay provided these children with an opportunity to identify their trauma, independently overcome that trauma, and grow.

Keywords : Myanmar refugee children, group sandplay therapy, Art Based Research (ABR)

* Lead Author, Instruct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Instructor, Namseoul University Cyber Continuing Education Center
(gginmandu@hanmail.net)

*** Co-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Co-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I . INTRODUCTION

The term “refugee” applies to any person who has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her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her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UNHCR, 2017). According to the 2016 UNHCR Global Report, there are approximately 1.7 million refugees around the world. As of July 2018, there are some 159,980 refugees and asylum-seekers registered with UNHCR in Malaysia. Some 138,650 (86.7%) are from Myanmar, comprising some 30,140 Rohingyas and 9,850 Chins (UNHCR, 2018).

Various ethnic groups with different cultures, religions, and languages dwell in Myanmar, the largest being the Burmese. While most Burmese believe in Buddhism, smaller groups like the Chins, Kachins, and Karens are mostly Christians. These minorities suffer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by the military (Kio, 2009). The Chins, who had lived in the woods found 900-2000 meters above sea level in the borders of India and Bangladesh, lost their settlement overnight through the attack of the Myanmar military. Today they are the most impoverished people in Myanmar, having to wander around to find a new settlement (Hankyireh 21, 2021). The countries they defected to seeking asylum in or wishing to settle down permanently are India, Bangladesh, and Malaysia, etc. Malaysia never sig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1951, for which it is not guaranteed that one might be recognized as a refugee or not. However, Malaysia is a country of multiple ethnicity, open to other cultures, and guarantees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eir constitution. This makes the country as a popular destination for refugees. They keep waiting for the opportunity to be recognized as refugees by the UN and allowed to live in the UK, enduring poor living conditions and poverty (Alexander, 2008).

Refugees are exposed to various trauma and stress, and young children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these experiences. There are two types of trauma/stress that they experience. The first is the hardship and violence they experience within their original country and in the process of escaping it (Fazel & Stein, 2002). The experienced the loss of their homes that they lived in for generations, their farm land, or having their family members injured or killed. As they escaped to a neighboring country over land or by sea, they were chased by the soldiers or

experienced violenc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Some of them had to witness their families or friends getting killed. Even after they are relocated, they are exposed to the violence in an indirect manner, by means of the SNS, news, or the stories told by the people who came after them, about the death of their people or the damages inflicted upon them.

The second is the trauma and stress they experience as they relocate and try to settle in a new place (Fazel & Stein, 2002).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expos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directly or indirectly over a long time are at a higher risk of experiencing a significant level of mental pain and trauma (Brune et al., 2002; 2003; Hargreaves et al., 2003; Hodes, 2000; Mckelvey & Webb, 1995; Sourander, 1998; Turner, et al., 2003).

Such experiences cause psychological difficulties as well as physical health problems in refugee children. Children with these problems would exhibit various psychological and social stress symptom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ating disorder, sleep disorder, regression such as separation anxiety, guilt, somatization, personal space invasion, fear of family members and the future, behavioral problems (e.g., screaming, crying, breaking things), and hyperactivity. Behaviors such as drug abuse, crime, and violence can be seen in adolescents (Maršanić et al., 2017; Veronese et al. 2017; Shonkoff & Garner 2012). Also, they suffer from anxiety, depression, PTSD, and many other mental health issues. Also, they suffer from anxiety, depression, PTSD, and many other mental health issues. In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mental health of refugees, especially among the juveniles, the female juveniles showed a higher level of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compared to the male juveniles. And, almost all juveniles reported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Low, et al., 2018). The response to such stress of the refugees are impacted by the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relationships (Lustig, et al., 2004). The juvenile refugees in Malaysia also try to solve their problems through social support (Kok, Lee, & Low, 2017). Support from good parents or adults, local social network, school life, and a positive outlook can help them adapt to a new country (Davies & Webb, 2000; Fazel & Stein, 2002; Mekki-Berrada, Rousseau, & Bertot, 2001; Papadopoulos, 2001). That is, it is necessary to use therapeutic interventions utilizing socio-psychological factors in order to address their trauma.

Though they are not about the refugees in Malaysia, other studies on the refugees under similar conditions are the study on the art therapy for the refugee children in Syria (Urgulu et al., 2016), a cognitive behavioral study related to the trauma of refugees (Unterhitzenberger et al., 2015), a case study on the parent-children relationship program for the refugee families from

Sudan (CPRT) (Lim & Ogawa, 2014), etc. Many psychological approaches showed they were effective against the trauma of the refugees. Also, while it is not about a war or violence, there was a sandplay study with the children who relocated to Canada from an area that suffered hundreds of thousands of deaths due to a massive tsunami the South Western Asia (Lacroix, et al., 2007) and a narrative analysis study on the sandplay therapy for the children who defected to Canada (Kronick, Rousseau, & Cleveland, 2018). However, no study regarding group sandplay therapy for Chin refugee children.

“Play is also a universal experience across cultures.” (Hilado et al., 2021, p. 233). The psychological therapies that utilizes the universality of plays in human experience allow to reduce the cultural gaps between the patient and the therapis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ient and a therapist can be explained as a transfer and reverse transfer. The image of this transfer/reverse transfer relationship can be visualized as a very fundamental relationship of concordance. It is also realized at the fundamental level through the projection of the inner mentality’s inherent, subconscious structure. That is, the transfer relationship is not the repetition of the experience of the patient but the activation and projection of the fundamental, instinctive compulsions that trigger a replay of the childish emotions (Jang & Lee, 2020). The relationship of such a subconscious level can be explained as a sand scene in a sandplay therapy.

In a sandplay therapy, sand, a box, water, and the models of various objects and images in the world are used by the patient and the therapist who participate in the play relationship. In this therapeutic approach, such an approach is used to allow the self-healing capabilities inherent in humans is activated. (Roesler, 2019). Also, this therapy provides the pathways for the expression of emotions and subconsciousness through non-verbal interactions, physical senses, and images compared to the ‘talking therapy,’ while maintaining a non-interpretive attitude. This makes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hat could overcome the differences in languages, cultures, and races (Jang, 2017; Castellana & Donfrancesco, 2005). In the sandplay, traumatic experiences of the client that are unable to be expressed verbally are represented by images and physical sensations (Jang, 2017). The symbolic plays provide a distance from traumatic events, giving the children a sense of safety (Hiladoet et al., 2021; Allan & Berry, 1987; Cattanach, 1995; Klem, 1992). The free and protective space concept in the sandplay therapy of Dora Kalff will turn the effort by the therapist to make the spa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therapist even safer into something therapeutic (Jang, 2017). This is how the mentality,

especially the subconscious part of it, expresses itself (Jung, 1984/2004). On the other than, the use of symbols means the utilization of imagination. Imagination is, in the perspective of being a human imagination, allows the patient of a psychological therapy that utilizes imagination to experience a sense of safety so that they can distance themselves from a reality that is too painful or difficult to face, while making it possible to handle the inner emotions and traumas at the same time (Lee, 2021; Jang, 2017). This matches with the concept of play. A play does not materialize imagination into reality. However, before applying it to reality, it materializes a life in a safe place. In this regard, Winnicott created the interim phenomenon concept for child's plays.(Winnicott, 1971). However, plays are not limited to children. Winnicott also mentioned that the plays in childhood connect to the culture and art in adult worlds (Winnicott, 1971).

The artistic activities called sandplays can all materialize creativity, plays, and activated imagination. For the new 'third thing' that realizes through the images that are created during sandplay therapies, the artistic activities attempt a free and protective space, respectful attitudes, and delayed interpretations (Humphris, 2019). A sandplay therapy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reative arts that expands the concept of arts (Jang, 2021; Klauck, 2021). Sometimes, an article on sandplay therapy is published on expressive art journals, and it seems to have contributed to the idea that the therapy is a part of expressive arts. However, expressive art therapies tend to be limited to the fields of fine art or music, etc. Therefor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call it a part of creative art therapies, referring to the broader meaning of parts, rather than put it under the category of expressive arts. Creative art therapies focus on the creation of meanings, empowerment, identity, emotional expressions, multi-sensory communication, relationship forming, and reciprocal subjectivity (Leavy, 2015/2018). Since every person has a fundamental drive to realize oneself with the art of a broader meaning (characterization and collectivity), i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art of a broader meaning, rather than the kind of arts that are limited to professional artists.

The group becomes a social microcosm of children's everyday world (Berg, Landreth, & Fall, 2006). Within the group, children learn to set their personal boundaries, respect those of the others, and engage in social interaction (Kestly, 2010). Formed not only at an individual's inner psychic level but also at an interpersonal level, groups allow children to experience a unique intimate relationship of "being within and being together" with their peers (Moustakas, 1997).

The group can be a powerful means of support and positive changes (Yalom & Leszcz, 2005) and can provide the opportunities needed to rebalance their behavior and enhance their functionality. Also, the shared mentality of having difficulties with settling into a new environment, following violence and evacuation, will allow the children to form a sense of community with others (Foy, Eriksson, & Trice, 2001; Dembert & Simmer, 2000). This is in harmon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group counseling.

In an arts-based research where the art is recognized as a way of knowing, the meaning of the art is a way of acquiring new knowledge through art creation, unlike the concept of the conventional art where the creation of an artwork itself is the ultimate goal. Gerber et al. (2012) argued that, in the same context, the art always delivers the truth and plays a pivotal role in acquiring the information on oneself and others, while the art-based philosophy is defined as the respect of the methods such as non-verbal means, emotions, and imaginations. In art, the subjectivity of the creator is emphasized. Therefore, acquiring knowledge through the art takes it for granted that the subjectivity of the researcher is emphasized, unlike the conventional research methods where empirical and scientific objectivity is emphasized (Rowland, 2022, 2021). However, the meaning of subjectivity is under debate. This is because, in arts-based researches, the subconsciousness is not mentioned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is subjectivity. However, in Jungian arts-based researches, subjectivity includes the knowledge on subconsciousness (Rowland, 2022). This is because their concept of the structure of human mind is that subconsciousness is the source of imagination, and the symbols are the projections of imagination, which is how the subconsciousness expresses itself (Jang 2017). Especially, the array of fundamental images of the collective subconsciousness of Jung accompanies emotions, which provides the information on the mental status of a person, the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and the recognition of objects and relationships. These, when used in a psychological therapy, play a therapeutic role (Jang, 2017). The therapeutic functions of arts, in an arts-based research, results in healing and changes (Rowland, 2022, 2021). This is, however, not the ultimate result that this approach aims to achieve. That is where it differs from art therapy.

In the perspective of independent studies, Leavy (2015/2018) viewed arts-based researches as a paradigm of independent research method, other than quantitative or qualitative study methods, while recognizing the methodological similarities with the cognitive theories of qualitative studies. Due to the overlaps in methodologies, some argue that it is a new technique of quantitative

studies (Knowles & Cole, 2008). Quantitative study methods originated from the demands for a paradigm change from empirical studies and now have settled as a research method. However, even in qualitative study methods, the verification of credibility, relevance, consistency, neutrality, coding methods, categorization, themes, and other strict criteria are required in order to address the criticism that they lack objectivity.

Under such a theoretical premise,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provided group sandplay therapies to the Burmese refugee children who relocated to Malaysia and analyzed their sandplay therapy themes with arts-based research methods. By providing an opportunity of plays to refugee children, the researcher intends to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they understand their experience and their current lives, as well as the process in which their psychological difficulties are mitigated. With the scene of the sandplays and the stories of their imagination, the researcher intends to analyze them and explain them, with a view to helping acquire a deeper understanding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refugee children.

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Chin refugee children aged from 10 to 13 who are attending an international school for refugees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Refugee Agency. They were selected among those who volunteered to be a part of the study, and a written consent was received from their legal guardians in advance. To minimize linguistic differences, children who are able to speak English were selected. A total of 14 children were selected, with 8 in each group for group sandplay. The group members were composed of the same gender: 8 boys in one group and 6 girls in the other group. Most of these children were from single-parent homes. This paper presents the materials of only 12 participants in total, as 2 of them missed two or more sessions while the study was in progres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participated as a researcher-participant, or rather of a participant than a researcher, in accordance with the theories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researchers of arts-based researchers, where ‘full-engagement’ is emphasized. The researcher-

participants were working in the clinical facilities as sand therapists and interest therapists, while taking their doctors courses in their child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major. They were well-experienced with sandplay therapies provided to the children and juveniles from various cultural spheres and experiencing psychological or developmental difficulties, including traumatic children.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	Gender/Age	Length of residence in Malaysia	Participant	Gender/Age	Length of residence in Malaysia
A	M/12	3 years	a	F/11	2 years
B	M/11	5 years	b	F/11	3 years
C	M/11	3 years	c	F/12	3 years
D	M/12	4 years	d	F/14	4 years
E	M/11	2 years	e	F/14	3 years
F	M/12	3 years	f	F/11	1 years

2. Research Procedure

There is yet no clear guidelines in relation to the research procedure or method of analysis for ABR. Shin(2015) applied the viewpoint of ABR in terms of research problem formation, data collection, analysis, interpretation, and findings. The researcher presents the research problem in an art-based way, spend sufficient time working on the research topic, and collect related works. Anything from song lyrics, paintings and videos to participatory observations and interviews about the work can serve as data (Shin, 2015).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understand the inner experience of refugee children, who experienced and are currently experiencing violence and insecurity by means of providing a sand therapy box to these children and creating a sand scene, through which the children were instructed to talk about their experience or draw a picture. A total of five sessions, each lasting for 120 minutes, were provided for two weeks beginning from February 2018. To provide “free and protected space” as suggested by Dora Kalff, a non-directive and semi-structured approach was taken. The participants paired up in a group of

two, sat across from each other with a sand tray between them, and each took turn creating a sandpicture. After the creation was over, the groups came together and shared stories of their sandpictures. In this process, one researcher-participant served as the main coordinator for the activities, with another researcher-participant to assist the said person and gather data. In an arts-based researcher where the equal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ers-participants and participants, the empathetic attitudes of researchers-participants, and full engagement by them are emphasized, the researcher-participant took care not to obstruct the self-expression of the participants while trying to listen to the sandplay scenes and the stories of their imagination. Also, in order to share the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the researchers tried to feel and emphasize with the participants through indirect violence experiences, though not the same kind of violence experience with those of the participants.

3. Data Analysis

Before administering sandplay, the participants' individual history and experience of settling in Malaysia was explored through an interview with their school teachers. The entire sandplay process was filmed, and photographs of individual sandpictures were taken. There were two researchers-participants: one who played the role of the program lead and the other who played the role of assistant for data collection. The second researcher-participant, who assumed an objective attitude, recorded the participants'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s as well as their comments about the sandpictures. The researchers-participants of this study shared their ideas, emotions, and feelings about refugee children, as well as unrestrained imaginations and feelings, which they record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k process of healing happening during the sandplay sessions of refugee children.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video of the entire process of sand therapies was projected, so that the records made by the participants of their verbal, non-verbal expressions, pictures, observation logs, the photos of individual sand boxes, and the imagination stories of each of the children were used as the data. While the researchers attempted the theme categorization of qualitative studies, they tried not to be locked on the verbal expressions uttered by the participants regarding their artistic outputs. The researchers-participants referred to the records of the entire process of sandplays, observation logs, the photos of the sand boxes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and pictures, with continued monitoring and discussion,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on the themes and expressions.

4. Research Integrity and Ethical Considerations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method of validity and reliability pertaining to existing quantitative or qualitative studies so as to secure the integrity of ABR (Lee, 2017). To this end, Leavy (2015/2018) emphasized an equal and impartial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ers and participants and also the “complete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Lee (2017) made a similar comment regarding the validity of ABR. He remarked that to secure validity of ABR, it is essential to adhere to the basic philosophy of qualitative studies: forming a deep empathy with the participants, creating a research environment that can see associations as-i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and ensuring that the connectivity with the research internal process is shown. The researcher-participant served as the group leader in group sandplay therapy, and tried to create a free and safe atmosphere in which the participants could fully express their opinions. The researcher-participant also assumed an acceptive attitude so as to deeply empathize with their stories. Photographs of the sandpictures and verbatim record were applied to the analysis in making interpretations so that the research process itself would be presented as is. In order to deepen the knowledge on the study theme through the dynamics and creativity of the group, three researchers-participants participated to conduct an analysis (McNiff, 1998).

Ethical considerations were made as follows: the researcher-participant provided a written material containing information on research purpose, confidentiality, etc. to the participants and their legal guardians. Participants were selected among those who agreed to participation and submitted written consent with signatures of their legal guardians. The researchers-participant explained that the participants may refuse to continue further at any time during the program, and how the photographs and video clips taken during the program will be used and managed. In addition, anonymity was used for confidentiality purpose so as to protect the participants when presenting the transcription notes and research findings.

III.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Burmese refugee children who escaped from Myanmar into Malaysia, who participated in a group sandplay therapy. The researchers-participants recorded the non-verbal expressions, pictures of the sandplays, and the imaginative stories on the sand scenes of the refugee children after the end of each session and the end of the entire program. Also, the researchers shared their own ideas, emotions, and feelings they had when they were with the refugee children, along with their free imaginations and feelings that they recorded. In this process, the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sandplays of the refugee children in the perspective of reciprocal subjectivity (Seongmin Park et al., 2021).

There were five common themes that appeared in the forms of sandplay scenes, imagination stories, and symbolic images of the children, which are as shown in Table 2 below. Here, the content expressed was not limited to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researchers-participants, as they concern the self-understanding of the participating children, as well.

Table 2. Common Themes

Themes	Content
Homes taken away	Invasion of outsiders, attack by soldiers, looting, roaring beasts, and threatening people, yearning for daily life
Abandoned children	A baby alone in a dangerous situation, maternal deficiency, Sick baby, baby playing alone, hungry baby
Bystanders	Observing hero, helpless hero, statue of Buddha or Jesus
Safety bases	Fire truck, police car, construction, cave, Fenced house, tree, school, food
Liberation/Resettlement	Moving to a new place, travel with friends, circle activity, future of themselves or things they have to do now, Independence with friends, self-sufficient, party, rest, wedding, worship

1. A sandplay scene of 'Homes Taken Away,' picture, and imaginative story

The Chins in Myanmar have lived a life of coexisting with nature, forming collective settlements mainly in alpine regions rich with resources, and most of them are Christians (Leach,

2004). As religious oppression continued in the country, the Chins left their homes behind and fled to Malaysia, leaving their homes behind. Bot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the refugee children in the process of resettlement remain as trauma, which is symbolically or more explicitly expressed in sandplay therapy.

The war, foreign invaders who raided their settlements, looting of hidden treasures, and the conflict between Buddha and Jesus statues represented in sand trays were described as “homes taken away” by most of the boy participants. These chaotic and disorderly sandpictures took root in the children’s inner world like an unexpected accident, and appeared repeatedly in early sessions. The early pictures mostly depicted chaotic scenes where people were left helpless: Sometimes a fire would break out and people would run everywhere, engage in fights in the process, and get into car accidents and lose means of mobility. At other times, snakes would break free and disable cars from moving. This felt similar to their current life, in which they cannot even be recognized as refugees, without being able to do anything.

On the other hand, the girls described a scene of their past daily lives, where they formed their own settlement in dense forests, where they lived nature-friendly lives. Such sand scenes included areas that were protected by dense forests or a space where all their family members were together, schools, or families that they created in their sand boxes, while the children verbally expressed that they missed them. They conveyed a sense of sadness, along with the longing for their old lives and their homes that are gone. They depicted their longing for their old homes, schools, and families not only through sandpictures but also verbally. But the yearning was also connected to their traumatic memories: While their past homes in the forest are represented in the sandpictur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children hiding behind buildings and trees as well as a threatening wolf inside a cave, which emanate tension and anxiety. A different sandpicture showed a man with a sword threatening a woman, while a family is eating a meal together. The researcher felt the internalized sorrow or loss, as most of the refugee children who fled to Malaysia experienced the demise of their family members or sudden separation from them, in addition to their longing for the old homes.

The sandpictures of refugee children were different from those made by children who suffer from trauma stemming from natural disasters. While sandpictures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a major earthquake in Nepal represented the natural disaster through dinosaurs or monsters in a jungle invading human villages (Lee & Jang, 2019), sandpictures of refugee children showed

soldiers or a new force invading and attacking animals living in a jungle. There is a stark difference in terms of the representations in sandpictures between trauma caused by natural disaster and man-made disaster.

The sand pictures of refugee children differed from the sand pictures conveying the trauma caused by natural disasters. The sand pictures of the juveniles who experienced the earthquake in Nepal depicted natural disasters as dinosaurs or monsters invading human habitats, which used to live in jungles(Lee & Jang, 20198). On the other hand, the sand pictures of refugee children showed that the soldiers or other groups invaded the jungle, where animals lived, and attacked these animals. This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a natural disaster and a human-inflicted disaster.

In the imaginative stories, the refugee children mentioned soldiers coming out of nowhere with guns, invading a peaceful land of animals; or bad people invading the habitat of aboriginal people, kidnapping them as slaves, or other forms of conflicts between opposing groups. One of the opposing groups was an army, armed with weapons, while the other was animals or aboriginal people warmed with bows or spears. Seeing such stories and sand pictures of refugee children, the researcher felt that the trauma of being exposed to violence and attack from a violent external group still haunted these children, with fear and dread.

The refugee children shared the impression that, when they shared their sand pictures and imaginative stories with the members of their groups, the stories of themselves and other children were similar. They told the researchers of their experience and lives that they were reminded of by sand pictures and started to share their own traumatic experiences. As the program continued, the children started to express the emotions they felt when the traumatic events happened to them, more directly. Through the sandplay therapy, they expressed their emotions to other members of their groups and listened to these other members, as well. Such imaginative stories provided a safe distance to these children from their traumatic events, which encouraged them to make attempts to overcome their trauma (Crenshaw & Hardy,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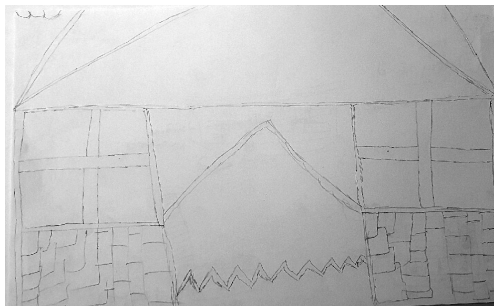
“An army has invaded where the animals live. They’re each trying to seize this land. The animals were living peacefully in this place. One day, an army came suddenly, to drive the animals out and take the land for themselves.” (Child D, session 2) “This is the village in Myanmar where I’d lived. This is the school. Here are my friends and teachers. (Touching the



Child D, session 2



Child e, session 3



Picture of Child A



Child c, session 2

house figure in the left rear corner). This house looks similar to the one I'd lived in Myanmar. We even did farming here." (Child e, session 3) "A war broke out. The people here are taken captive. They're later sold as slaves. Everyone is fighting. Bad guys and good guys are fighting. Everyone's fallen down and these people are the only ones left." (Child B, session 1, session 2), "... now that I see it, it looks like the house I used to live in." (Child A, explaining the picture.)

2. Abandoned Children

Children are the most vulnerable during wars and disasters. Abandoned children, or babies to be precise, appeared in the sandpictures. The babies who are exposed to danger seem to be a symbolic expression of the participants themselves, who were abandoned by their families and mother country. The babies in danger need more robust care, and this seems to project their desire for care. This is the expression of their desire originating from the deficiency of maternal love. Most of them suffered loss of one or both parents in their escape or during the time

around their resettlement, or some of them had only one parent, the other having deceased.

In sandpictures of boy participants, there are babies who are facing a situation of emergency: There is a baby at a place where fire broke out with no one to save it. There is also a baby left alone in a boat, which is heading long way. On the other hand, babies in sandpictures of girl participants are mostly neglected; they are playing without a guardian, or the guardian would be far away.

Indiscriminate oppression by the Myanmar government forced the refugee children to lose their homes and to suddenly become adults in order to take protect and take care of themselves. Such situation in life activates the orphan archetype, and children seek to find a sense of belonging that is lost in their lives. The orphan archetype is like a psychological exile full of feelings of being alone and of being abandoned; it i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being deserted (Pearson, 1998/2020). The refugee children are orphans not only in physical reality but also psychologically.

However, the constellation of the orphan archetype, which entails feelings of isolation, anguish, and despair, invites us to explore the creative potential in feeling alone in oneself and the world and supports the activation of self-restoring energy (Punnett, 2014). Just as Jung said that only in the state of complete abandonment and loneliness that we experience the helpful powers of our own natures, the orphans and babies without guardians in a situation of crisis that appear in sandpictures and story from imagination of refugee children act as a catalyst for their journey of growth towards recovery and maturity to overcome their trauma. As the sessions of group sand therapy continued, there stories started to feature a figure who rescue the babies from danger, heal sick babies, or take care of the babies who were playing alone.

The sense of isolation and loneliness due to being orphaned and other inner feelings were revived through the feelings and imaginations of the researchers. The researchers felt that, at the earlier stage, the refugee children rather concentrated on the play, as if they threw up their inner trauma, while playing only with themselves. At that time, the researchers felt isolated from the refugee children, and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mentalities of the children at a sufficient level. The refugee children who experienced a trauma showed signs of inner conflict between the feelings in which they hoped the researchers understood them at a sufficient level and shared their trauma and the desire to have a psychological distance with the researchers regarding their trauma.

The researchers-participant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reducing the psychological gaps with the children and form a friendly relationship, as well as a sense of isolation while they attempted to form a rapport with the children during the earlier stages. Some of traumatic children have a tendency of mistrust against adults. This is because the traumatic event made it difficult for them to maintain a human relationship, severs the ties of relationships, and damages the trust or belief in their counterparts (Perry & Szalavitz, 2006; Dayton, 2000). As such, the children who experienced disconnections with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experience a loss of safety, trust, and value. This was sensed by the researchers-participants, and there were difficulties during the earlier stages due to the mentalities of an excessive level of negativity or over-engagement. Such difficulties laid obstacles for the researcher in forming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refugee children.



Child E, session 3



Child f, session 2



Picture of Child a



Child a, session 3

“There’s a baby in here. It’s in danger, but the parents don’t know. Everyone’s trying to save the baby but it’s hard.” (Child E, session 3) “The babies are playing amongst themselves; no one

is taking care of them. The adults are either taking a rest or busy working, so the older sister is watching them.” (Child f, session 2) “Each child has his or her own animals to take care of, and they’re feeding the animals now. Other children walk around doing what they want, but there are no adults. Just children.” (Child a, session 3) “There are only my friends and me here...” (Child a, explaining the picture)

3. Bystander

Superheroes like Spider-Man and Superman appear in the sandpicture, who seem like they are there to provide help in the midst of the chaotic war. But these superheroes remain as bystanders, watching what is taking place on top of a tree or lying down on the ground helplessly. The gods represented in the sandpictures appear mostly in the form of a statue. While there are no superheroes in girl participants’ sandplay process, there are figures representing gods, church, and cross. Rather than taking an active stance, the god statues remain where they are. People have to go to them, instead of them going to the people. These sandpictures show the children’s inner world: Children who experienced direct or indirect loss remain silent to traumatic events that put their lives at risk (Ayyash-Abodo, 2001) and are unable to express related sadness and anger out of the fear that they would be overwhelmed. Childhood traumatic grief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characteristic trauma-related symptoms interfere with children’s ability to adequately mourn the loss of a loved one or livelihood (Cohen et al., 2002). While refugee children try to stand up to the “bad guys” and protect themselves through prayer, the energy to fight against great fear and establish a new survival strategy appears to have been blocked, as can be seen through the helpless state of gods and heroes.

The theme of bystander is a trauma implying ethical and political themes; under man-invoked brutality, those who are helpless are internalized as the “pain of the powerless” (Herman, 1997). The work of recovering from trauma is depends on a political movement for human rights or social support (Herman, 1997, 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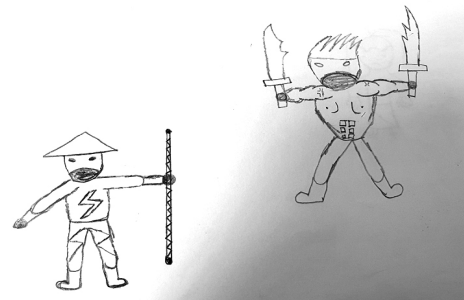
While the situation around them is chaotic or in desperate need of help, the heroes, who are capable of resolving the situation or helping the victims are either too tired or just standing idle. This can be related to the elements that just watched their situation and their own exhaustion. This is their own aspect that could do nothing but watch the fears that hindered

their development.

During the group sandplay sessions, the children talked about their dreams. Some of them wanted to go back to Myanmar to become a teacher of help the children there. This indicates that the children were not overwhelmed by their trauma, as they faced their reality and overcame difficulties. The issue of refugees cannot be solved by a single individual, as the issue is rooted in the issues of political, religious, and social aspects. It requires many people and social help. The children seemed to be looking for what they could do in this. Refugee children integrate the subjective environments that they experienced and objective environments as they grow in them.



Child A, session 1



Picture of Child C



Child E, session 1



Child b, session 4

“There was a war, and people are taken prisoners. The soldiers seized them all. The Buddha statue is attacking. It’s strong. This is the Jesus Team. They are all down.” (Child A, session 1)
“The soldiers stormed deep into the forest. The animals try to stop them, but they need help. But Spider-Man is just watching. He’s just watching while hiding.” (Child D, session 2) *“This is a*

tired Superman...” (Child E, Session 1), “They have to go out and fight, but they are still grooming themselves.” (Child C, describing the picture)

4. Safety bases

The desire to live on despite challenging circumstances and the energy of recovery were represented through many symbols. The baby who could not be saved from a fire appeared again in a later sandpicture. This time, the fire truck is there to rescue the baby. The firetruck as well as the police car are also there to save someone who is attempting suicide. Doctors and nurses, who are symbols of life and recovery, are waiting to treat the injured baby. Activities of rescue and treatment signify that the healing energy is becoming activated within the children. The healing energy ruminates on the experiences and emotions related to the trauma in an automatic and penetrative manner and, at some point, allows us to re-examine the meaning of our anger and move on to an arbitrary process of reflection that enables us to look back on our past lives (Im, 2020). Such constructive thinking drives growth, a new belief that embraces the new, changed environment develops (Martin & Tesser,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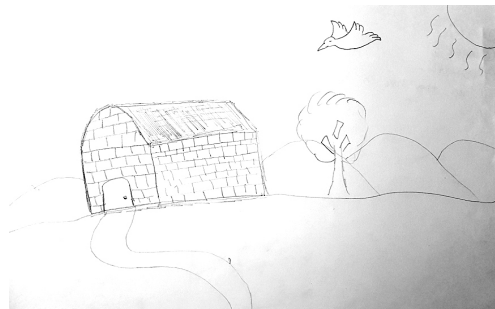
Similar things could be found in sandpictures of girl participants, but in a more reality-based manner. The girls' sandpictures showed the pastor at the refugee school and a fenced house surrounded by trees, which expressed their needs for a safe life. In addition, food figures continue to appear, which showed their needs for a life full of things to eat and enjoy. Embarking on a path towards recovery from trauma is possible only through a supportive environment (Yehuda, 2004). The refugee school and religion functioned as a social support within the collective, playing a key role in the trauma recovery.

The imaginative stories of the children involved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y while having a hearty meal, a construction site to reconstruct a safe and protected area, and the firefighters or medical personnel who are trying to help the people out of the disaster. The children explored a non-violent alternative and strategy to ensure their safety and protection, or it seems that they were trying to satisfy their desire for basic physiological needs due to the failure to satisfy them in a consistent manner by means of engaging in the plays in which they cook, eat, build a safe and protected area, and heal. Especially, the children tried to build a safe base in their world, where they could have the entities that heal, restore, and provide the warmth they

need for growth while it is safe and they can get the care they need there. Like a baby that feels safe while being with their parents after being tired or anxious and then continue to explore the surroundings before it comes back again as they grow, the refugee children started to form a 'safety base' in their minds, which is a safe place and a place where they can recover and grow, to seek safety and stability in their uncertain situations. The researchers felt that, in a safe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 their sense of loss and being abandoned was purified. Also, the researchers were assured that the children had the capabilities and resources to protect themselves.



Child B, session 3



picture of Child G



Child C, session 2



Child a, session 2

"The volcano erupted here, so the house is on fire. The fireman saved the baby and is putting the baby inside {the incubator}. He saved the bay. Outside, doctors and nurses are waiting to treat the injured baby." (Child B, session 3) "The whole family came together and is having a party. There's plenty to eat. Here are my grandmother, grandfather, mother, father, me and my younger siblings. We also raise livestock." (Child c, session 4) "This place is under construction to build something new. (What is being built?) Umm... They're building a swimming pool. So that's why

they're bringing sand. But someone here is trying to commit suicide. His wife saw that and got shocked. Fortunately, people called 911 and the ambulances and fire trucks arrived. Now, he can be saved.” (Child C, Session 2) “... this is as strong as the house of the youngest pig in the story of three pig brothers.” (Child G, explaining the picture)

5. Liberation/Resettlement

Liberation means being free of oppression or binds. Refugee children created sand pictures and told stories in which they escaped from oppression by the government of Myanmar to seek freedom or their frozen emotions being liberated. Most of the Chins who fled to Malaysia and settled in the country did not receive refugee status. Receiving refugee status in Malaysia is fairly difficult. In other words, they are living in an unstable condition without official status in Malaysia, and therefore their sand pictures reflect their desire to live in a place where they have a clear status and can play their due role.

Boy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desire to move to a new and bigger place, somewhere that is not as unstable as where they live now. In sandplay, such wish was represented through the play of migrating to a different country by riding on an airplane or the creation of a new village. Girl participants talked about living a life of independence in the forest. Their sandpictures told stories of these girls becoming independent and with their close friends, either living alone or together, and having enough livestock and trees to be self-sufficient. One girl mentioned that the house is surrounded by trees deep in the forest, and that not anyone can enter. The house provides safety and refuge, separates inside from outside, and is also a symbol of the ego, the subject of the consciousness related to feelings, judgments, and awareness in reality (Bradway, 2001). The ego assumes the necessary attitude and function to adapt or cope with the external world. In a safe environment of self-sufficiency, children protect and take care of themselves, deal with emotions and memories related to their traumatic experiences, abandon their old selves, and move towards a new life.

The boys created sandpictures of the most enjoyable experience they had in Malaysia. They talked about the past school trip to the zoo and also about their future and what they ought to do at present. Girls mentioned how they played with their school friends and engaged in school social club activities, and expressed their wish to continue those activities.

Fences were a common figure in the sandpicture of both boys and girls. The fence symbolizes the protection of internal space from external space and the control over it (Cooper, 1978). The fence in the sandpicture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se children are trying to solidify and control their inner world which is full of anxiety and fear related to their traumatic experiences. Animals and plants placed inside the fence and people outside of it show improved ability to control the instinct energy. The growth of the ego function in the children helps them adapt to new settlements and guides them to return to a normal life.

Also, a sense of freedom could be felt in the imaginative stories of refugee children. They showed signs of the recovery of their self-autonomy, featuring airplanes or vehicles that could take them anywhere they wanted or 'my dream house.' The sense of self-autonomy and independence being restored means they are in control of their fate. They are not overwhelmed by their trauma, as they experienced self-control through sandplay therapies.



Child F, session 4



Child f, session 3



Picture of Child F



Child e, session 4

"We once went to a zoo together at school, and it was so much fun. I want to go there again. The people here are all watching the animals.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in this Zoo. Anyone can see an animal if they want to." (Child D, session 4) "They're friends on a vacation, and they're taking pictures and looking around. (You can feed animals at the lake. They do what they want to do." (Child e, session 4) "Everyone is praying on Sunday. I wish we'd go to school every day. Here is the pastor. Things we want to do... things that we want ... I think we can do them here. Here is the pastor, and everyone is here to pray and join a service." (Child b, session 5) "They're all lined up to get on a plane headed to the US. There are many airplanes that can go to the US. I want to go to the US, too." (Child F, session 4) "She's living here with her little sister, just the two of them. Not anyone can come in here. This place is deep inside the forest. I like this place, because it's quiet." (Child f, session 3) "There's construction going on here. They're digging sand and cutting trees to make a new village." (Child C, session 4) "It's my house. There are fences and cars. If you have a car,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Child F, explaining the picture)

IV. CONCLUSION

This study, which was about the process of group psychological therapy of the Chin refugee children from Myanmar currently living in Malaysia, involved approaches such as group sandplay sessions, creating imaginative stories, and drawing pictur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not limited to subjective interpretations by the researchers-participants. They include the expressions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s and creation process of the children. The five repeating themes appearing in the sessions of sandplay therapy provided to the Burmese refugee children were lost homes, abandoned children, bystanders, safe bases, liberation, and resettl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xisting refugee studies are mostly quantitative studies and qualitative case studies related to their mental health (Fazel & Stein, 2002; Akthar & Lovell, 2019). But through ABR, this study was able to gain a deep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that refugee children went through in the process of becoming refugees. It also provided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refugee children accept and express those experiences through symbols, themes and story from imagination in sandplay. Though not the purpose of arts-based researchers itself,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 of the children will, eventually, make it possible to take not only a therapeutic approach but also a preventive approach that can help them develop their resources.

Secondly, the participants, who were Chins of Myanmar, which is a multi-racial country, could understand how they were different from other refugees. This study was comparable to the study of Lee and Jang (2020), which administered group sandplay therapy to Rohingya refugee children who were traumatized by indiscriminate religious oppression in Myanmar. These Rohingya refugee children's sand pictures showed violence and aggression, both boys and girls, through themes such as the survival of the boat people and ceaseless fights. On the other hand, the Chins, who lived in the forest in peace, did not show scenes of violence but the scenes in which they were cast away as refugees, having lost their homes in the forest. Their works commonly included the lives in the forest in the past, the difficulties they faced as they tried to resettle, and despite such hardships, their attempt to restore their daily lives. Such a difference is believed partially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as well. Chins went through a process of Christianization in the past, while Rohingyas have Islamic traditions. This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ir cultural experience in which Christian attitudes, where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re emphasized,

Third, the children described their traumatic experiences through sandplays, pictures, and imaginative stories, as they engaged in psychological processes to address their trauma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it. An artistic creation process allows having a sense of distance from external influences. And creative expressions will promote adaptive coping skills and a sense of independence, with which they can connect severed thoughts and emotions (Malchiodi, 2015). This process, based on the children's imagination and creativity, is a healing process in itself. Children's sand pictures, as well as their verbal expressions became gradually organized as therapy progressed. They concluded that the traumatic events are in the past and there is nothing they can do about them. Instead, they discussed their future plans and imaginations within the 'present.' This is because as the refugee children use symbols to visually express their experiences in sand pictures, as various forms of art, they experience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at with their consciousness (Siegel, 2001). Such findings are similar to those of studies that show how sensory interventions such as play and art representations can be effective for trauma (Southwell, 2016; Quinlan et al., 2016; Green, 2011; Malchiodi, 2008). The study indicated

that sandplay therapy is an appropriate method of psychotherapy to transform implicit (i.e., nonverbal) memories in refugee children, integrate emotions, and allow regulation of those emotions.

Lastly, the refugee children shared their emotions related to the trauma and resettlement within a safe group, forming a mutual trust. With reciprocal subjectivity, a psychological alliance between children and researchers-participants was formed, in which they experienced emotional empathy and support (Schoe, 2021). Refugee children discussed with each other during sandplay therapies and recognized that the emotions they felt were things of the past. Also, they reconstructed the meanings of traumatic events, which resulted in internal emotional rewards and emotional changes to counter them, and it was shown that sandplay therapies could assist this process.

The arts-based research methods are not psychological therapies. However, they seem to be an appropriate way in which it is possible to intervene and study children who are from resettling in a new environment and have limitations in their linguistic expression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rt-based research methods in a more study in a more systematic manner in order to have these studies on refugee children further developed. Arts-based researchers are based on artistic creation processes. Therefore, it is easier to apply more flexible approaches with more freedom, reflecting the clinical contexts more closely. The researcher-participant has to deliver artistic and therapeutic originality through arts-based research (Soh, 2019), while proving artistic values. For this reason, there must be a basic system that can deliver artistic and therapeutic originality and academic values. For example, there must be a theoretical and logical structure that could address the criticism of the credibility and validity of the study. The criticism of credibility and validity is an attitude that excludes the originality of individuals and individual understanding.

Also, the researcher of arts-based research needs to develop the perspectives and capabilities as a researcher-participant. Arts-based research uses artistic methods to explore, understand, and express human behaviors and experiences (Baden & Wimpenny, 2014). To deliver the voices of research participants as they are, the researcher-participant must have a view that imagination and insight can be a way of conducting the study and practice understanding the process in which various experiences and emotions are expressed in an artistic manner.

Reference

- Akthar, Z., & Lovell, A. (2019). Art therapy with refugee children: A qualitative study explored through the lens of art therapists and their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Therapy*, 24(3), 139-148. <https://doi.org/10.1080/17454832.2018.1533571>.
- Alexander, A. (2008) Without refuge: Chin refugees in India and Malaysia. *Forced Migration Review*, 30, 36-37. http://www.norwaychin.no/wp-content/uploads/2013/10/Chin-refugee_Alexander-Amy.pdf.
- Allan, J., & Berry, P. (1987). Sandplay.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1(4), 301-307.
- Ayyash-Abdo, H. (2001). Childhood bereavement: What school psychologists need to know.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4), 417-433. <https://doi.org/10.1177/0143034301224003>.
- Berg, R. C., Landreth, G. L., & Fall, K. A. (2017). *Group Counseling: Concepts and Procedures* (6th ed.). New York, NY: Routledge.
- Bradway, K. (2001). Symbol dictionary: Symbolic meanings of sandplay images.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0(1), 9-110.
- Brune, M., Haasen, C., Krausz, M., Yagdiran, O., Bustos, E., & Eisenman, D. (2002). Belief systems as coping factors for traumatized refugees: A pilot study. *European Psychiatry*, 17(8), 451-458. [https://doi.org/10.1016/S0924-9338\(02\)00708-3](https://doi.org/10.1016/S0924-9338(02)00708-3).
- Brune, M., Haasen, C., Yagdiran, O., & Bustos, E. (2003). Treatment of drug addiction in traumatised refugees. *European addiction research*, 9(3), 144-146. <https://doi.org/10.1159/000070985>.
- Castellana, F., & Donfrancesco, A. (2005). Sandplay in Jungian analysis: matter and symbolic integration 1.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50(3), 367-382. <https://doi.org/10.1111/j.0021-8774.2005.00538.x>.
- Cohen, J. A., Mannarino, A. P., Greenberg, T., Padlo, S., & Shipley, C. (2002). Childhood traumatic grief: Concepts and controversies. *Trauma, Violence, & Abuse*, 3(4), 307-327. <https://doi.org/10.1177/15248380>.
- Cooper, J. C. (2012).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Y, Lee, Trans.) Seoul: Kachi Publishing Co., Ltd.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Crenshaw, D. A., & Hardy, K. V. (2007). The crucial role of empathy in breaking the silence of traumatized children in play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6(2), 160-175. <https://doi.org/10.1037/1555-6824.16.2.160>.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06).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avies, M., & Webb, E. (2000). Promo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fugee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 541-554. <https://doi.org/10.1177/1359104500005004008>.
- Dayton, T. (2000). *Trauma and addiction: Ending the cycle of pain through emotional literacy*.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
- Dembert, M. L., & Simmer, E. D. (2000). *When trauma affects a community: Group interventions and support after a disaster*. In Group psychiatric treatment for psychological trauma (pp. 239-264). New York, NY: Guilford Press.
- Fazel, M., & Stein, A. (2002). The mental health of refugee children.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87(5), 366-370. <http://dx.doi.org/10.1136/adc.87.5.366>.
- Foy, D. W., Eriksson, C. B., & Trice, G. A. (2001). Introduction to group interventions for trauma survivors.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5(4), 246. <https://doi.org/10.1037/1089-2699.5.4.246>.
- Gerber, N., Templeton, E., Chilton, G., Liebman, M. C., Manders, E., & Shim, M. (2012). Art-based research as a pedagogical approach to studying intersubjectivity in the creative arts therapies. *Journal of Applied Arts & Health*, 3(1), 39-48. https://doi.org/10.1386/jaah.3.1.39_1.
- Green, A. (2011). Art and music therapy for trauma survivors. *Canadian Art Therapy Association Journal*, 24(2), 14-19. <https://doi.org/10.1080/08322473.2011.11415547>.
- Hankyireh 21 (2021, November 9). Hear the cry of 'Chin'.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1182.html. Accessed March 10, 2022.
- Hargreaves, S., Holmes, A., & Friedland, J. S. (2003). The United Kingdom's experience of providing health care for refugees: time for international standards?. *Journal of Travel Medicine*, 10(2), 73-74. <https://doi.org/10.2310/7060.2003.31635>.
- Herman, J. (1997).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NY: Basic Books.
- Hilado, A., Chu, A., & Magrisso, A. (2021). *Treatment for refuge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Refugee mental health*. (pp. 215-25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0000226-009>.
- Hodes, M. (2000). Psychologically distressed refugee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Review*, 5(2), 57-68. <https://doi.org/10.1017/S136064170000215X>.
- Humphris, M. (2019). Sandplay and Art: Embodying the Creative Process. *Jung Journal*, 13(3), 143-155. <https://doi-org.ezproxyles.flo.org/10.1037/0000226-009>.
- Im, S-Y. (2020). Integrated Approaches to Traumatic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A Focus on Posttraumatic Growth.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2), 1019-1041. <https://doi.org/10.23844/kjcp.2020.05.32.2.1019>.

- Jang, M. (2017). *Analytical Psychological Sandplay Therapy*. Seoul: Hakjisa.
- Jang, M., & Kim, Y. H. (2012). The effect of group sandplay therapy on the social anxiety, loneliness and self-expression of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in South Korea. *The Arts in Psychotherapy*, 39(1), 38-41. <https://doi.org/10.1016/j.aip.2011.11.008>.
- Jang, M., & Lee, Y. (2020). Numinose of Play and Its Healing Teleology.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1(2), 1-43. <https://doi.org/10.12964/jsst.20006>.
- Jung, C. G. (1984/2004). *Erlösungsvorstellungen in der Alchemie*. Seoul: Sol Books.
- Cooper, J. C. (2012).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Y, Lee, Trans.) Seoul: Kachi Publishing Co., Ltd.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Kestly, T. (2010). *Group sandplay in elementary schools*. In A. Drewes & C. Schaefer (Eds.), *School-based play therapy* (2nd ed., 237-256). Hoboken, NJ: Wiley.
- Knowles, J. G., & Cole, A. L. (2008). *Handbook of the arts in qualitative research: Perspectives, methodologies, examples, and issue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Kim, J-S., & Seo, M. (2020). Arts-Based Narrative Inquiry in Lives of Male Alcoholics' with Suicide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1(3), 115-136. <https://doi.org/10.15703/kjc.21.3.202006.115>.
- Kio, H (2008). FLEEING BURMA WHERE LIFE IS AT RISK.
<http://www.chro.ca/index.php/resources/refugee-issues/293-fleeing-burma-where-life-is-at-risk8>.
Accessed 13 November 2021.
- Klem, P. R. (1992). The use of the dollhouse as an effective disclosure techniqu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 69-73. <https://doi.org/10.1037/H0090236>.
- Klauck, L. (2021). How Art Therapy Can Ethically Address Symptoms of Trauma with Asylum Seekers and Refugees, A Literature Review. *Expressive Therapies Capstone Theses*. 389.
https://digitalcommons.lesley.edu/expressive_theses/389. Accessed March 8, 2022.
- Kok, J. K., Lee, M. N., & Low, S. K. (2017). Coping abilities and social support of Myanmar teenage refugees in Malaysia.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2(1), 71-80.
<https://doi.org/10.1080/17450128.2016.1263774>.
- Kronick, R., Rousseau, C., & Cleveland, J. (2018). Refugee children's sandplay narratives in immigration detention in Canada.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7(4), 423-437.
<https://doi.org/10.1007/s00787-017-1012-0>.
- Lacroix, L., Rousseau, C., Gauthier, M. F., Singh, A., Giguère, N., & Lemzoudi, Y. (2007). Immigrant and refugee preschoolers' sandplay representations of the tsunami. *The Arts in Psychotherapy*, 34(2), 99-113. <https://doi.org/10.1016/j.aip.2006.09.006>.
- Leach, E. R. (2004).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A Study of Kachin Social Structure A Study Of*

- Kachin Social Structure*. New York, NY: Routledge.
- Leavy, P. (2018). *Method meets art: Arts-based research practice* (2nd ed.). (J-H., Kim, Trans.) Seoul: Hakg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5).
- Lee, B-Y., & Jang, M. (2015). Comparisons between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in Psychological Themes and Stories Expressed in Sandplay Therapy.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3(4), 61-72.
- Lee, M-J. (2017). A Study on the value of the methods of art in art-based research. *Journal of Art Education*, 50, 47-72.
- Lee, S., & Jang, M. (2018). A Study of Themes and Symbols in Group Sandplay Therapy of Rohingya Refugee Children in Malaysia.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9(1), 53-70.
<https://doi.org/10.12964/jsst.18004>.
- Lee, Y. (2021).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ill-Point Experience of Therapists in Play 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amseoul, Cheonan, Korea.
- Lim, S. L., & Ogawa, Y. (2014). "Once I had kids, now I am raising kids": Child-Parent Relationship Therapy (CPRT) with a Sudanese refugee family—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3(2), 70-89. <https://doi.org/10.1037/a0036362>.
- Low, S. K., Tan, S. A., Kok, J. K., Nainee, S., & Viapude, G. N. (2018).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 refugees in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4(2), 428-439.
<https://dx.doi.org/10.20319/pijs.2018.42.428439>.
- Lustig, S. L., Kia-Keating, M., Knight, W. G., Geltman, P., Ellis, H., Kinzie, J. D., ... & Saxe, G. N. (2004). Review of child and adolescent refugee mental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1), 24-36. <https://doi.org/10.1097/00004583-200401000-00012>.
- Maršanić, V. B., Franić, T., & Ćurković, K. D. (2017). Mental health issues of refugee children: lessons from Croatia.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6(3), 377-381.
<https://doi.org/10.1007/s00787-016-0924-4>.
- Malchiodi, C. A. (2015). *Neurobiology, creative interventions, and childhood trauma*. In C. A. Malchiodi (Ed.), *Creative interventions with traumatized children* (pp. 3-2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alchiodi, C. A. (2008). *Creative interventions and childhood trauma*. In C. A. Malchiodi (Ed.), *Creative interventions with traumatized children* (pp. 3-21).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artin, L., & Tesser, A. (1996). *Some ruminative thoughts*. In Wyer, R. S. (Ed.),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9, 1-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Mckelvey, R. S., & Webb, J. A. (1995). Unaccompanied status as a risk factor in Vietnamese

- Amerasians. *Social Science & Medicine*, 41(2), 261-266. [https://doi.org/10.1016/0277-9536\(94\)00314-J](https://doi.org/10.1016/0277-9536(94)00314-J).
- Mekki-Berrada, A., Rousseau, C., & Bertot, J. (2001). Research on refugees: Means of transmitting suffering and forging social bond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30(2), 41-57. <https://doi.org/10.1080/00207411.2001.11449518>.
- Moustakas, C. (1997). *Relationship play therapy*. Northvale, NJ: Aronson.
- O'Conner, K. L. (2001). *Play therapy primer* (2nd ed.).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Inc.
- O'shea, B., Hodes, M., Down, G., & Bramley, J. (2000). A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 for Refugee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 189-201. <https://doi.org/10.1177/1359104500005002004>.
- Panter-Brick, C., Grimon, MP., & Eggerman, M. (2014). Caregiver-child mental health: A prospective study in conflict and refugee setting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5(4), 313-327. <https://doi.org/10.1111/jcpp.12167>.
- Papadopoulos, R. K. (2001). Refugee families: Issues of systemic supervision. *Journal of family Therapy*, 23(4), 405-422. <https://doi.org/10.1111/1467-6427.00193>.
- Park, S. (2020). An Art-Based Research on Suicidal Mind through the Folk Tale < The Sun and the Moon >. *Anthropology of education*, 23(3), 111-162.
- Park, S-M., Jo, Y., & Jung, H-K. (2021). An Arts-based research on group sandplay therapy for children in local children's centers who are overly dependent on internet and smartphones experiencing the COVID-19 pandemic era.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2(1), 175-234. <https://doi.org/10.12964/jsst.21005>.
- Pearson, C. (2020). *Hero Within - Rev. & Expanded Ed.: Six Archetypes We Live By*. (C-H, Ryu, Trans.). Seoul: Alchemist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Perry, B., & Szalavitz, M. (2006). *The boy who was raised as a dog(And other stories from a child psychiatrist's notebook: What traumatized children can teach us about loss, love, and healing)*. New York, NY: Basic Books.
- Punnett, A. (2014). *The orphan: A journey to wholeness*. Carmel, CA: Fisher King Press.
- Quinlan, R., Schweitzer, R. D., Khawaja, N., & Griffin, J. (2016). Evaluation of a school-based creative arts therapy program for adolescents from refugee backgrounds. *The Arts in Psychotherapy*, 47, 72-78. <https://doi.org/10.1016/j.aip.2015.09.006>.
- Roesler, C. (2019). Sandplay therapy: An overview of theory, applications and evidence base. *The arts in Psychotherapy*, 64, 84-94. <https://doi.org/10.1016/j.aip.2019.04.001>.
- Rowland, R. & Weishauss, J. (2021). *Jungian arts-based research and the nuclear enchantment of New Mexico*. London/New York: Routledge.

- Rowland, R. (2022). Jungian Arts-Based Research: What it is, Why do it, and How).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3(1), 19-34. <https://doi.org/10.12964/jsst.22001>.
- Schore, A. (2021). Right Brain-to-Right Brain Psychotherapy: Recent Clinical and Scientific Advances.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2(2), 13-22. <https://doi.org/10.12964/jsst.21007>.
- Seo, M-Y. (2007). *The Study on Psycho and 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y by Group Play Therapy - Focusing on self-esteem, emotional maladjustment, and recognition of divorce -*.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anyang, Korea.
- Shonkoff, J. P., Garner, A. S., Committee on Psychosocial Aspects of Child and Family Health, Committee on Early Childhood, Adoption, and Dependent Care, and Section on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Siegel, B. S., Dobbins, M. I., Earls, M. F., ... & Wood, D. L. (2012).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Pediatrics*, 129(1), e232-e246. <https://doi.org/10.1542/peds.2011-2663>
- Siegel, D. J. (2001). Toward an interpersonal neurobiology of the developing mind: Attachment relationships, “mindsight,” and neural integra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1/2), 67-94. [https://doi.org/10.1002/1097-0355\(200101/04\)22:1<67::AID-IMHJ3>3.0.CO;2-G](https://doi.org/10.1002/1097-0355(200101/04)22:1<67::AID-IMHJ3>3.0.CO;2-G).
- So, H. (2019). Experiencing Body Movement in a Creative Arts Psychotherapy Group.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76(4), 53-73. <https://doi.org/10.16877/kjds.75.3.201909.53>.
- Southwell, J. (2016). Using ‘expressive therapies’ to treat developmental trauma and attachment problems in preschool-aged children. *Children Australia*, 41(2), 114-125. <https://doi.org/10.1017/cha.2016.7>.
- Sourander, A. (1998). Behavior problems and traumatic events of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Child abuse & neglect*, 22(7), 719-727. [https://doi.org/10.1016/S0145-2134\(98\)00053-2](https://doi.org/10.1016/S0145-2134(98)00053-2).
- Turner, S. W., Bowie, C., Dunn, G., Shapo, L., & Yule, W. (2003). Mental health of Kosovan Albanian refugees in the UK.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2(5), 444-448. <https://doi.org/10.1192/bjp.182.5.444>.
- Ugurly, N., Akca, L., & Acarturk, C. (2016). An art therapy intervention for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Syrian refugee children.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1(2), 89-102. <https://doi.org/10.1080/17450128.2016.1181288>.
- UNHCR (2018). Figures at a Glance in Malaysia. <http://www.unhcr.org/en-my/figures-at-a-glance-in-malaysia.html?query=myanmar> Accessed October 11, 2021.
- UNHCR (2017). <http://www.unhcr.or.kr/> Accessed September 5, 2020.
- UNHCR (2016). Global Report 2016. UNHCR

- Unterhitzenberger, J., Eberle-Sejari, R., Rassenhofer, M., Sukale, T., Rosner, R., & Goldbeck, L. (2015). 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with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a case series. *BMC Psychiatry*, 15(1), 260. <https://doi.org/10.1186/s12888-015-0645-0>.
- Veronese, G., Pepe, A., Jaradah, A., Al Muranak, F., & Hamdouna, H. (2017). Modelling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trauma in children exposed to ongoing military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in Palestine. *Child abuse & neglect*, 63, 61-72. <https://doi.org/10.1016/j.chiabu.2016.11.018>.
- Wang, D., Nan, J. K., & Zhang, R. (2017). Structured group sandplay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A pilot study. *Arts in Psychotherapy*, 55, 186-194. <https://doi.org/10.1016/j.aip.2017.04.006>.
- Winnicott, D. (1971). *Play and reality*. New York, NY: Basic Books.
- Yalom, I.,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5th ed.). New York, NY: Basic Books.
- Yehuda, R. (2004). Risk and resilienc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5, 29-36.

투고일 : 2022. 03. 30

수정일 : 2022. 06. 03

게재확정일 : 2022. 06. 04